

증시 惡材... ‘금리 인상-동결’ 기로에 선 파월

〈연준 의장〉

연준 3월 기준금리 인상 유력했지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상황 달라져
일각선 “美경제 확장 문제없다”지만
주가 급락·경기과열·인플레 우려에
기존 시나리오 유지 어렵다 분석도
28일 의회 청문회...파월 ‘입’에 주목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기로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상황은 달라졌다.

파월 의장은 긴축 기조를 변경하든 하지 않든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1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5일 공식 취임식을 치르자마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급락해 사상 최대 낙폭

을 기록하는 첫 위기를 맞았다. 3월 20~21일 취임 후 첫 FOMC에서 시장 혼란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과제가 새롭게 주어지게 됐다.

아직 연준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월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8일 연설에서 “주가 급락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증시 하락세가 그리 큰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준이 아직 3월 금리인상이라는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금융컨설팅업체 옵저버토리그룹은 “증시 조정이 지속돼도 거시경제 데이터와 기업 실적에 큰 변화가 없는 한 3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

다봤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에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박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연준이 기존 시나리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파월은 FOMC에 앞서 의회에서 먼저 데뷔전을 치른다. 28일부터 이틀간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한다. 파월이 올해 세 차례 금리인상이라는 기존 정책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혼란을 촉발했던 방아쇠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지표의 호조였다. 1월 고용통계에서 평균 시급 인상률이 연율 2.9%

로,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불만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 경기과열을 유도하는 것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재정 대책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말 감세에 이어 최근 장기 예산안과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연준은 장기 금리 상승 원인을 조성한 것은 자신들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경제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기존 경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를 인상하면 긴축 기조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시장이 계속 혼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 연준이 관망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을 보류하면 인플레이션 불안이 커지면서 장기 금리가 더 상승해 사태가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미묘한 시기를 맞아 파월의 의회 증언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가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할지 조정이 모아지고 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2013년 5월 양적완화 축소를 처음 언급하면서 ‘긴축발작’을 유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공시지가 ‘3.3㎡당 3억’ 명동, 15년째 땅값 不敗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 ‘전국 최고가’
상위 10위권 필지 모두 명동 상권에 소재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위 소재지 현황

순위	상호명(소재지)	면적(㎡)	공시지가(만 원/㎡) 2017년	2018년
1	네이처리퍼블릭(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169.3	8600	9130
2	우리은행(서울시 중구 명동2가)	392.4	8300	8860
3	유니클로(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300.1	8160	8720
4	토니모리(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71	7970	8540
5	VDL(서울시 중구 명동2가)	66.4	7840	8360
6	레스모아(서울시 중구 명동1가)	195.4	7670	8220
7	TOPTEN(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2.9	7670	8210
8	라네스(서울시 중구 명동2가)	108.4	7610	8120
9	아이오페(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466.1	7190	7630
10	LUSH(서울시 중구 명동1가)	59.5	7040	7440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가 올해도 1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14면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3.3㎡당 3억129만 원을 기록했다. 면적 169.3㎡의 상업용 토지인 이 땅은 지난해에 3.3㎡당 2억8380만 원에서 1년 새 약 6.16%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외에도 전국 상위 10위권에 기록된 필지 10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명동 상권에 소재한 땅으로 나타났다.

명동2가의 ‘우리은행’ 부지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최고지가를 기록하기 전인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최고가를 기록했던 필지답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위를 기록한 명동1가의 59.5㎡ 상업용 필지는 3.3㎡당 2억4552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부지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놀음도리의 면적 1만3686㎡의 임야로, 3.3㎡당 205원으로 평가됐다. 이 필지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전국 최저 지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부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1만3884㎡의 임야로 3.3㎡당 2만178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지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한 해 동안 표준지 공시지가가 18.76% 상승한 마포구 연남동으로 나타났다.

성수역에서 이어지는 성동구 성수동의 카페거리가 14.53%의 상승으로 주요 상권 중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용산구 이태원2동의 경리단길이 14.09%,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13.76%로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인 6.89%를 두 배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표준지 땅값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

대도시는 주택 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 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정용 기자 cogito@

“수출 好況 발목 잡힐라”...산업부, 정책 선제대응 나선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주요 업종별 수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2월 짧은 조업일수·기저효과 영향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 열어
수출 마케팅 예산 60% 早期투입키로

우리 수출이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탄 가운데 2월에는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수출 총력제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도 “2월에는 대내외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올해 2월은 설 연휴로 인해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2.5일이나 적은 데다 중국 춘절 연휴(2월 15~21일) 효과도 있다. 또한 지난

해 2월 수출이 20.2% 늘어난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 증가세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 규제 조치 확대, 미국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등의 요인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도 미국 국채금리 및 리보(Libor) 급등, 주요국 주가 상승 등으로 다소 과열되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 대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부가가치의 감소로 이어진다.

회의에 참석한 관련 협회와 단체들도 조업일수 영향이 큰 자동차·차 부품·일반 기계·섬유를 비롯해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되는 무선통신기기·가전의 수출 감소 가능성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정부는 수출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2월에 의료기기, 2차전지, 소비재 등 19회

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올해 수출 마케팅 예산 1559억 원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무역 실무부터 수출계약·이행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밀착 지원을 강화해 연간 5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에 성공한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중단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고위급 해외 순방과 연계한 상담회, 세미나 등 선홍국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新)남방정책 지역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확대된 총 49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정부와 수출 지원 기관, 업계가 다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업종별로 수출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수출 저해요인을 최대한 사전에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謹賀新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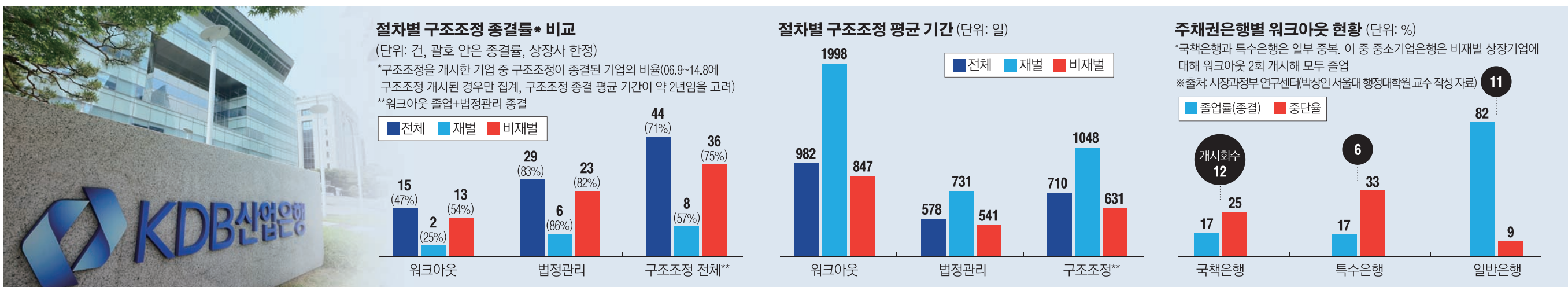
신용의 상징·비특표
유한양행
광고심의필 : 2018-1426-3001



高함량 메가비타민—
메가트루 포커스정 Focus

**高함량 메가비타민으로
피로회복부터 빠르게!**
(자연면역강화제 성분)

피로회복/체력저하/눈의 피로·건조감/
성장기비타민D·칼슘·아연 보급/구내염, 어깨결림



“법정관리 성공률의 절반”... ‘워크아웃 무용론’ 다시 고개

존폐 기로에 놓인 기축법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축법) 상시화 논란은 그 자체로 정부가 구조조정의 철학이나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올해 역시 기축법 일몰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시장, 법조계,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최종 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축법을 연장 또는 상시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부분 기축법에 의한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방식이 사실상 효과가 없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방조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수행한 구조조정 현황 연구에 따르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종결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2006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구조조정 진행 중인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끝낸 경우는 10년간 15건(개시 건수 대비 47%)에 불과했다. 특히 재벌기업이 워크아웃의 효과를 본 경우는

정부 “연장 또는 상시화” 입장에도

학계·법조계 “정부 시장개입 부작용”

“국책은행 중심 기업 구조조정 한계”

정책금융공사로 축소 통폐합” 목소리

산은, 기업 구조조정 역할 축소 움직임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법정관리 종결률은 29건(83%)에 달했다. 재벌기업 7곳 중 6곳이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을 마쳤다.

재벌기업이 워크아웃에 진입한 후 절차를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진입하는 사례도 많았다. 국책은행 주도 채권단 위주 구조조정에 실패한 후 뒤늦게 법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워크아웃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재벌 대기업은 평균 1998일로 법정관리(731일)보다 1년 이상 길다. 이는 구조조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문제는 부실장후 기업, 특히 대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워크아웃 졸업률은 17%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8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시중은행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재벌기업 워크아웃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과 달리 산은과 수은은 대부분 재벌기업을 맡았다. 대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박 교수는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 발생과 기업 희생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국책은행이 재벌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되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기업에 낙관적인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의 생명만 연장시키거나 기존 총수가 경영권을 되찾도록 돕는 병폐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자율협약 초기 우리·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했으나 산업·수출입·농협은행 등은 채권단에 남아 약 4조

5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2016년 5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후야 겨우 제대로 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에는 1998년 이후 산술적으로만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박 교수는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하고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공사로 축소·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치금융과 국책은행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특히 이러한 구조조정 행태가 자본시장과 법원 주도 회생절차의 미발달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오는 6월 기축법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산은·수은의 구조조정 역할 자체는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부터 산은 내부에서는 구조조정부문을 축소하는 방향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퇴임한 정용석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의 자리를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이 겸직하도록 비워둔 데 이어 현재 구조조정1실장 자리 역시 공석이다. 구조1실 내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등을 관리했던 조선·해운지원단 역시 없었다.

정다운 기자 gamja@

IMF 이후 산업은행 회장 검찰 조사 및 유죄판결 내역

산업은행 총재	
이근영(1998~2000)	현대 계열사에 5500억 원 규모 불법대출,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북송금’ 특검에 긴급체포 후 구속기소, 대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연낙용(2000~2001)	국감서 대북송금 관련 발언 후 8개월 만에 사퇴.
정건용(2001~2003)	일명 ‘김재록 게이트’ 관련, 산업은행 발주 컨설팅 업무 특정 기업이 말도못 도와주고 금품 수수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김창록(2005~2008)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탁 받아 성곡미술관 후원한 혐의로 검찰조사.
민유성(2008~2011)	파산 직전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했다 구설수에 휘말려 자진 사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관련 청탁 논란 연루.
산은 금융지주 회장	
강만수(2011~2013)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회사에 거액 투자하도록 유도한 혐의 등, 특검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2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 선고.
홍기택(2013~2016)	대우조선해양 부당 지원 관련, 검찰 소환 조사

‘부실共犯’ 산은 수장들

이근영·강만수... IMF 이후 9명 중 6명 검찰조사 받거나 유죄판결
자회사 부실 눈감아주고 불법대출 부당지원... 대부분 친정권 인사

산업은행이 자회사나 주채무계열 기업, 일반 대출기업 등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황은 그간 전·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산은 총재(회장) 9명(현 이동걸 회장 제외) 중 6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은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함께 5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산은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이 가담해 자회사의 부실을 눈감아 주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된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산은이 본격적으로 부실 기업을 떠안기 시작한 IMF 이후로 산은 총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문제로 검찰에 불려가야 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IMF 당시 산은 이근영 전 총재는 현대 계열사에 55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일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당시 정부 입김 아래 부당한 대출을 했다는 명목이었다.

뒤이어 정건용 전 총재는 김재록 인베스트스 글로벌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됐다. 김창록 전 총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탁을 받아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은 관료 출신이거나 청와대에서 직접 임명된 친정권 인사다. IMF 이후 임명된 이근영·연낙용·정건용·유지창·김창록·강만수 전 총재(회장)가 모두 옛 재무 라인 관료들로 일명 ‘모피아(관료+마피아)’로 묶이는 그룹이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은 각각 투자은행(IB), 학계 출신이지만 임명 당시 대표적인 친이·친박 인사로 불렸다. 수십년째 정부 입김 아래 국책은행이 산업·기업 구조조정 칼자루를 쥐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역대 회장들이 범죄자가 됐다.

Let's Dream High

하나되어 더 높은 꿈을 꾸는 대한민국!
LH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LH는 강릉선수촌과 미디어촌을 건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
OFFICIAL SPONSO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더 걷히는 세금 90%가 不動産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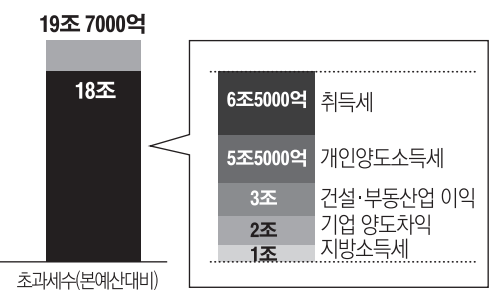
2016년 초과세수 19.7조 중 18조
취득세 6.5조, 개인 양도세 5.5조
건설·부동산 수익에 법인세 등 3조
“활황 예상됐지만 보수적 예측” 지적

2016년 초과세수(19조 7000억 원)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18조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활황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발표한 ‘초과세수 주요 원인은 부동산 활황’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걷은 금액은 약 18조 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5년과 2016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선 개인들이 얻는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는 2013년 40조 원에서 2016년 74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7조~8조 원 수준이던 양도소득세도

2016년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규모 (단위: 원)



2016년 13조 7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금액을 추정하면 2016년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또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어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에 비해 2015년에 약 2조 원의 법인세가 부동산 양도차익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경기 활황효과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로도 나타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는 연간 1조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역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연간 4000억~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과 부

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도 연간 5000억~6000억 원 증가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도 연간 1000억 원의 세수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는 연간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에도 부동산 경기 활황 효과가 있다. 취득세가 연간 13조~14조 원 수준에서 2016년 21조 7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중 부동산 관련 취득세만 추정해 보면 2016년 17조 4000억 원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10조 9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증가분도 1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6년과 국세수입(본예산대비)은 전년 대비 19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초과세수가 많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세수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소득세 초과수입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사전예측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초과수입이 발생해 보다 정교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객도훈 기자 soqood@

산업부 내에 ‘新再生에너지정책단’ 신설

국장급 전담조직…4개 科 41명 정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을 신설한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ICT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체 발전량의 7%

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기반실은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보급 확산 업무를 맡게 된다.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담당한다.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 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제도 개선과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와의 협상을 앞둔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아래 FTA 담당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엘리 기자 ellee@

“설 물가 어떻습니까”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 판매장을 방문해 설명절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김병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협동조합 월급, 정규직 147만원·비정규직 92만원 2년간 정규직 3만원 오르고 비정규직 8만원 떨어져

협동조합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016년 말 기준 정규직 147만 원, 비정규직은 92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정규직은 3만 원 오르고, 비정규직은 8만 원 떨어진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협동조합들의 사업운영·고용·재무현황 등에 대한 3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만 615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2014년 말 기준 2차 조사(6235개)에 비해 4380개 늘어난 규모다.

전체 조합원 수는 31만 3000명, 평균 조합원 수는 61.6명으로 2차 조사(46.8명)에 비해 14.8명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 수는 6만 9000명, 평균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2차 조사(8.2명)에 비해 5.3명 늘었다.

평균 근로자는 4.3명으로 2차 조사(2.9명)에 비해 1.4명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중 취약계층은 20.2%에서 34.7%로 확대됐다.

월평균 급여(주 34시간 기준)는 정규직 147만 원, 비정규직 92만 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정규직 144만 원, 비정규직 100만 원)에 비해 정규직은 3만 원 오르고, 비정규직은 8만 원 떨어진 수치

다.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유급휴일제외) 기준으로 추정 시, 월평균 급여는 186만 원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의 평균 자산은 6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매출은 2억 1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억 3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1935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급감했다.

협동조합들은 자금조달 시 금융기관 이용(21.1%)보다는 조합원 출자확대(42.3%), 이사진 차입(39.6%) 등 내부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금융기관 이용 시 예외사항으로는 담보 부담(24.0%)과 과도한 서류 제출(16.7%), 재무성과 입증(16.1%) 등을 꼽았다. 낮은 금융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설립—사업화—규모화 등) 맞춤형 세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南北정상회담 여건 조성 ‘4강 외교’ 가동

정의를용 실장 중심으로 준비 착수
文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가능성
틸러슨 “북, 뭘 해야 할지 알 것”

미국 정부가 12일 북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남북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집트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 카이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대화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은 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밝혀 핵 동결이라든지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경 입장이었던 미국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로만 단계 낮은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일단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공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핫라인을 최대한 가동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실장이 미국에 직접 가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로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 설득이 어느 정도 조율되면 북한에 대해 북 특사를 파견해 회담 시기와 방법, 주요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하거나 북미 회담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북특사로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민사소송 뚫겠다”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하며 피해자 증거 자료 수집 지원 협조 밝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이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와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한 사안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애경산업에 8800만 원, SK케미칼에 3900만 원, 이마트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애경산업과 SK 케미칼 전 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 고발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 검찰의 위법성 확인과 수

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상하는 과정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자료 수집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하겠다”며 공정위가 법률적 지원과 함께 비용 지원 등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진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죄드리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분들(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병립 기자 riby@

興野, 지방선거 6 달 앞두고 ‘설 밥상民心 잡기’

당 지도부 귀성객 인사·지방 방문

6·13 지방선거를 6 달 앞두고 여야 대표가 ‘설날 민심’ 잡기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맞은 이번 설은 ‘밥상머리’에 민생 문제가 화두로 오를 것을 고려하면 민생·개혁 과제를 점검하기에 적기다. 또 지역 여론 선점에 따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꿈더하기 지원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나눔의 정치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12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들러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하는 14일에는 최고위원, 대변인들과 함께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난다.

추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재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13일 대구를 찾아 밀바다 민심을 살핀다. 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를 연 뒤 곧바로 K-ICT 3D 프린팅 대구센터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한다.

홍 대표는 또 대구 북구 칠곡 향교에서 열리는 핵심당원 교육에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를 찾는 것도 지지층부터 먼저 단단히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에는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도·소매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장바구니 물가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 홍 대표는 김해 신공항 유치와 지리산담 건설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30석 3당’ 바른미래당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3일 우여곡절 끝에 한기탈 아래 뭉친다. 양당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은 30석 규모의 원내 제3당으로서 대안 야당을 목표로 활동할 전망이다. 다만, 당 이념노선 결정을 출범 직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반(反)통합파 의원들의 이탈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출범식을 열고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초대 당 대표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을 전망이다.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감동철 원내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유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직후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

혔다. 안철수 대표는 앞서 신당 출범 이후 ‘2선 후퇴’를 선언했다.

통합에 앞서 양당은 전날 의원 합동 연석회의를 열고 상건례를 겸한 정책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신당의 성공을 위해 양당 의원들이 화합하고 끝까지 당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양당은 막판까지 신당 당헌과 정책이념을 담은 정강·정책을 결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합리적 진보’와 ‘햇볕 정책’ 등 당의 이념을 상징하는 단어를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반복했다. 최종적으로는 ‘진보·보수’ 등 정치 이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현재 30석 규모로 시작했지만, 추가 탈당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동빈 롯데회장 ‘운명의 날’… 오늘 국정농단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罪 될까

〈K스포츠재단〉

최순실·안종범 前정책수석도 함께 재판
롯데 “준조세 가까운 요청에 공익 지원
70억 강요로 냈는데 뇌물 양립 동의 못해”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정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가 면세점에서 탈락하기 전에 정부가 이미 면세점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보면 롯데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막연하게 선거를

기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

롯데는 이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이자 강요 피해자다. 신 회장 측은 “현안이 없으면 기업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기업이 사실상 준조세에 가까운 요청을 받아 공익지원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면세점 현안이 중요해서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것과 내기 싫었는데 강요로 냈다는 사실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단에 출연금을 내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 당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다. 검찰은 SK가 워커히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상황과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최태원(58)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앞서 진행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승마지원 일부만 유죄가 나오면서 신 회장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신 회장을 비롯해 최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을 나흘 앞둔 12일 서울 송파구 부리도어린이집에서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前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불출석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 진술과 관련된 인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는 대동

령과 접점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흡결을 지켰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대통령이 이미 국정농단 실세가 눈과 귀를 가려 국정 판단을 못한 것처럼 평가 절하하고, 차명폰, 기지료, 의상실 비용 금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적었다”며 “근거 없이 각주를 통해 강조하는 표현을 써서 다시 한 번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에 예단을 주려고 부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이 발생하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정기적인 상담을 중단했다고 지시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전 원장에게 ‘그간 지원한 자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 변호사는 이날 공판 직후 “검찰은 엘리트 팀 구성해서 수사기간까지 2년여 동안 재판 준비해오면서 꼬끼리를 그려놓고 싸우는데 저는 이제 3주 남짓 돼서 꼬끼리 다리도 보지 못한 채 싸우는 게 끌리었고 다행히 싸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국세청, 강남 4區 고강도 세무조사

779명 세금 추징·532명 추가조사 착수
변칙 상속·증여 TF 6월까지 연장 운영

국세청이 이른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며 다음 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779명은 이미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8월 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7일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을 추가, 조사에 나섰다.

또 3차 조사는 작년 11월 28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1월 18일부터는 서울 강남권 편법 증여 등 탈세 혐

의가 있는 532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가격 급등지역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당초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6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TF는 출범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기업 사주 일가의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 위법행위를 확인, 총 107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 확대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거래 탈루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 A씨는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기 위한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내 말이 성희롱일까? 앱은 알고 있다

고용부 ‘성희롱 자가진단 앱’ 출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앱은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성희롱 판단력’ 관련 20개 문항에서 정답이 14개 이하일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

모에 대한 칭찬’, ‘동성 간의 음담패설’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가 정답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본인과 소속 조직의 성희롱 관대화 정도,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것(5점 척도)을 표시한다.

고용부는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진단 앱을 적극 활용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부터는 다국적 기업의 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내려받은 뒤 실행하면 된다. 박은평 기자 pepe@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구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

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현 법원행정처 전 산정보관리국장, 구태희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 방안을 세우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장효진 기자 js62@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5%종금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지침서는 중대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이하 예금보통예금)과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미트론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원/건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심사필
제출 - 030270

WEB AWARD
1st WINNER

우리銀, 작년 텔러 채용비리 추가 발견

〈개인금융서비스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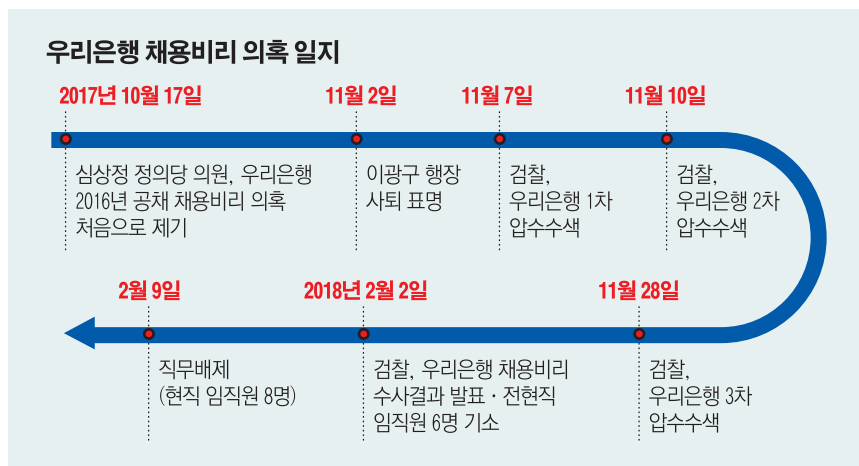
불합격 지원자 면접점수 조작
檢, 입수수색으로 문서 발견
인사 실무 총괄부장 기소
현직 임직원 8명 직무배제

우리은행이 지난해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채용비리 이외에 ‘텔러 채용비리’가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이 기소한 6명 전현직 임직원에는 지난해 텔러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 간부를 포함한 현직 8명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은 이광구 전 행장,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 등 전직 임원 2명과 장안호 전 인사담당상무, 조모 전 인사부장, 홍보 전 인사부장, 이모 전 인사팀장 등 현직 임직원 4명이다. 이 가운데 조모 전 인사부장은 ‘텔러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가 됐다.

이광구 전 행장 등 나머지 5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폭



로한 2016년 공채 건이 기소의 핵심 사유였다. 조 인사부장은 2017년 1~12월까지 해당 직책을 맡은 뒤 올해부터 강남 인근의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해왔다.

금융권 및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개인금융서비스 직군(텔러) 공채 과정에서 불합격자에 있던 지원자를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인사 실무를 총괄한 조 인사부장을 기소한 것이다. 텔러는 영업점 창구 업무를 전담하는 직군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초 채용 공고를 내고 텔러 100여 명을 채용했다.

우리은행은 9일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 총 8명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장안호 전 인사상무와 조 전 인사부장 등 기소된 4명과 2016년께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 대리급 직원 등 4명이 포함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 인사부 내에 있었던 말단 직원들까지 포함해 모두 8명이 직무에서 배제돼 기타조사사역으로 발령, 출퇴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법원

판결로 확정이 안 된 만큼 면직시킬 수는 없고 일단 업무에 돌 수도 없어서 사실상의 인사발령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2015~17년 공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지인 청탁명부를 미리 만들어 31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11월 7일, 10일, 28일 우리은행에 대한 총 3차례 입수수색을 벌였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2016년은 일반적 공채, 작년에는 텔러 공채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고 관련 청탁 문건을 검찰이 발견해서 기소된 6명 중 유일하게 지난해 공채건으로 인사간부가 기소된 것”이라며 “내부 직원이 청탁 문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냈는데, 검찰 수사관이 3차 입수수색 과정에서 CCTV를 통해 이를 파악해 텔러 채용비리를 입증할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외유성 ‘해외 연수’·고문 보수 일시 지급 등 업무 보고 소홀 당국, 여신금융협회 경영유의 조치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고문 보수 지급과 해외 연수·출장비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경영유의 9건, 개선 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신협회는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했지만 월 단위로 업무실적, 업무활동 등을 보고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해 왔다. 또 고문 보수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문의 역할, 업무, 역할 수행에 상응하는 보수 수준,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신협회는 연수, 출장기간 중 문화체험, 현지 관광 등 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포함해 체재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관광지 기념품 구입비,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 업무 외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외여비, 연수비, 회의비 등 항목으로 추가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협외성 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집

행한 점도 지적됐다. 협외성 경비는 대외 활동 관계비용, 각종 회의비 등에 사용되며 집행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신협회는 2015~2016년 중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회장의 승인 없이 협외성 경비를 집행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월별 한도를 넘기기도 했다. 협외성 경비의 주말 사용 비중은 16.6%, 골프 관련 사용 비중은 14.6%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외여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외성 경비는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승인을 받고 업무목적 외 사용, 주말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계업무 운영 합리화, 계약업무 운영 합리화, 가맹점모집인 등록업무 강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업무 강화,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집중 관리·활용 강화, IT관련 내규 및 매뉴얼 보완 철저 등이 지적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정수현 기자 int1000@

韓銀, 시각장애인용 지폐점자카드 발급 추진

지폐 점자 마모돼 인식 어려워
연합회와 협의 후 규격·매수 결정

한국은행이 시각장애인의 지폐 인식을 도와주는 플라스틱 카드(사진)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폐 부분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애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시각장애인용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규격, 매수 등을 결정한다. 이후 관련 협회들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신권지폐 앞면에는 금액표시 아래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새겨져 있다. 1000원권은 점자 1개, 5000원권은 점자 2개, 5만 원권은 선 5개 식으로 열 마짜리인 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막상 시각장애인들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에 점자가 튀어나온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져도 마모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급할 플라스틱 카드는 지폐의 길이 차이를 이용해 금액을 구분한다. 카드에는 위차별로 각 금액이 점자로 적혀 있다. 카드에 지폐를 넣어 접었을 때 끝에 위치한 점자를 인식하는 식으로 쓰인다. 왕희진 한국은행 발권정책팀 과장은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카드도 그 당시 배포한 형태”라며 “발행 매수, 발행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근거 마련됐지만... “현실은 어렵다”

법제처 “과징금 부과해야” 유권해석 내렸지만
금융당국 “실명제 이후 계좌정보 없어” 딜레마

10년 전 불거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논란이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인 ‘계좌원장’이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처는 1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금 절반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과징금 부과를 위해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는 이 같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지난해 차명계좌 전수조사… 계좌정보 확인 못해 = 법제처의 이날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권해석의 핵심은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소득세는 종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좌원장’이 없어 곤혹스러

운 상황이다. 금융회사는 10년까지 계좌정보를 보관하지만 이후는 폐기해도 상관없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1993년 8월12일 당시의 계좌 잔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의 계좌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만일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밝혀진 이 회장 차명 재산 4조4000억 원 가운데 최대 2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 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시효 ‘두 달’ 밖에 없어 = 여기에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은 세금과 같이 부과 시효가 10년이다. 차명계좌 존재가 알려진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발표일은 2008년 4월17일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17일이 과징금 부과 마지막 날”이라며 “머뭇거리면 한 톨의 과징금도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이 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견어쳤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500여 개에 달한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1197개에 금감원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32개, 경찰이 수사 결과 밝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다.

안철우 기자 acw@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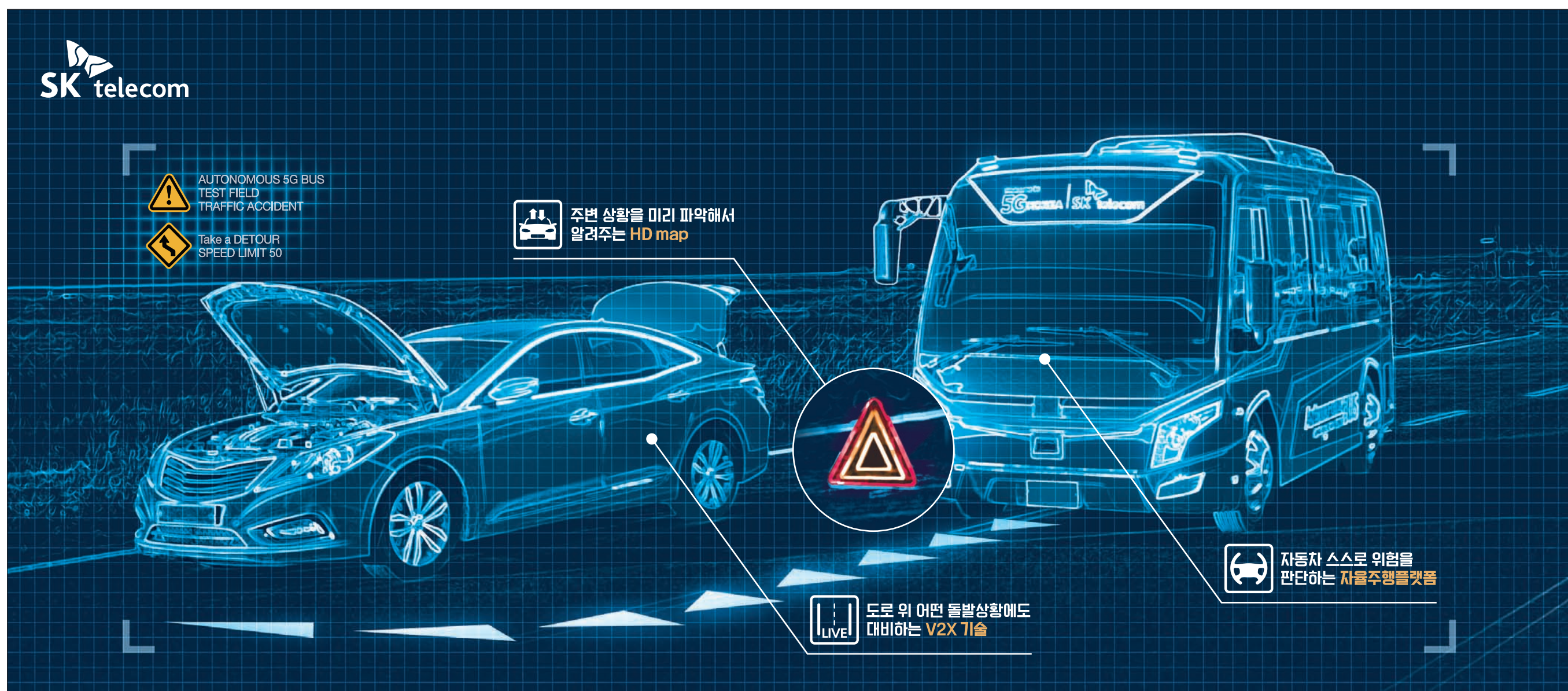
가장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민경제

힘들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채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내일의 세상에선 도로 위 사고를 전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사라지기를.

내일의 길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길이 되기를.

5G자율주행 버스로

SK텔레콤이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사고 없는 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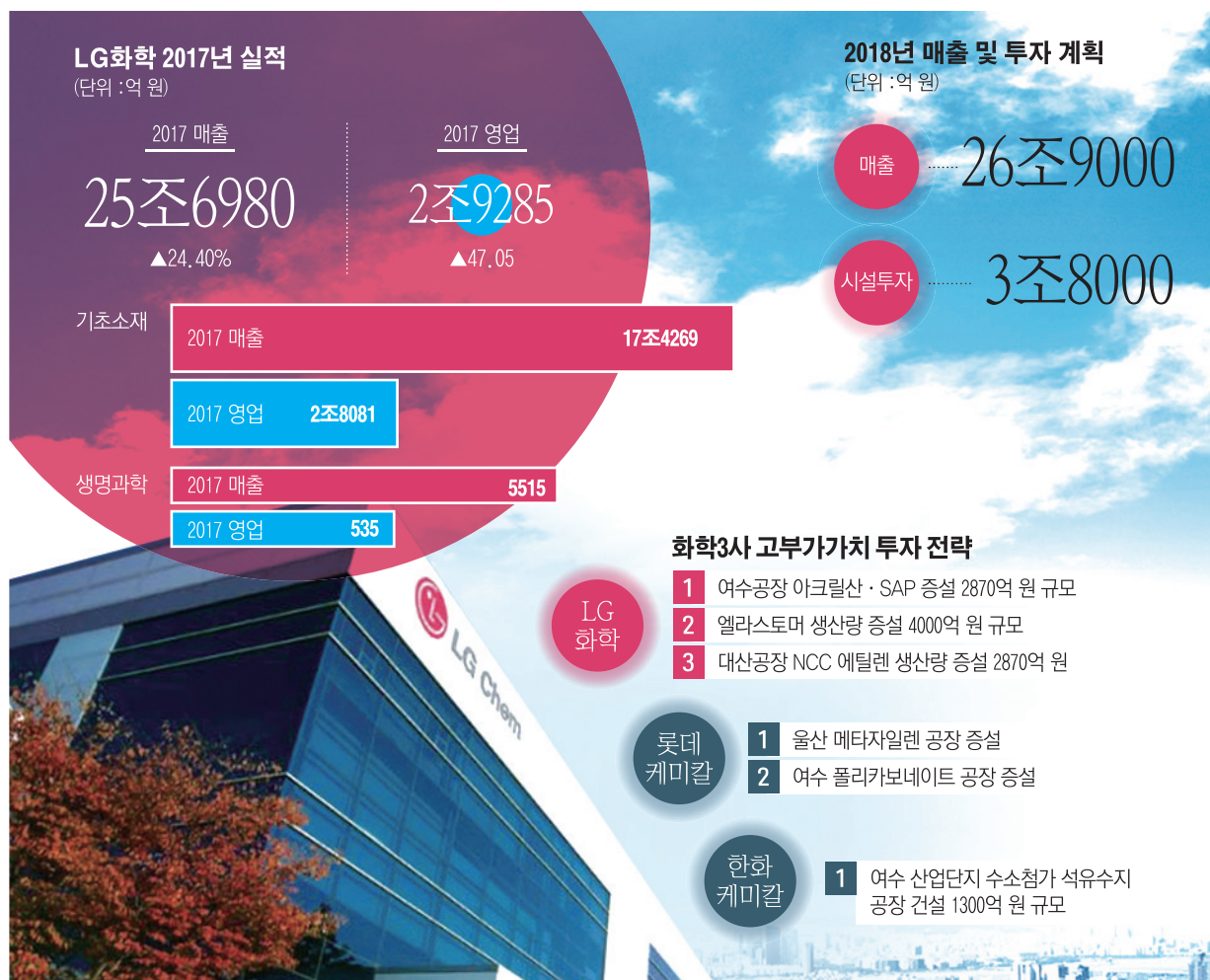
모두가 바라는 내일로 5G는 향해 갑니다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LG화학, 사상 최대규모 1兆 회사채 발행

‘슈퍼 사이클’ 탄 화학업계 대규모 유동자금 몰렸다



수요예측 흥행에 당초 5000억에서 2배 증액
작년 영업이익 47% 증가 등 실적 개선 기대
국내외 생산시설 확장 투자 등에 사용 계획

LG화학이 1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장의 유동 자금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화학업체로 몰린 결과이다.

LG화학은 12일 당초 5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획을 1조 원으로 증액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총 2조16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회사채 수요예측제는 회사채 발행조건 결정을 위해 발행사와 주관사가 공모 희망금리 밴드를 제시하고 시장의 수요를 파악한 후 최종 발행금리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LG화학의 수요예측 자금과 회사채 모두 최대 규모다. 2012년 국내에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수요예측 최대 기록은 지난해 LG화학이 모은 1조7700억 원의 자금이다. 1조 원의 회사채 규모도 제도 도입 후 최대 기록으로, 이전 최대 회사채 기록은 2017년 5월 LG화학이 발행한 8000억 원의 회사채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공적인 수요예측 실적과 회사채에 대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LG화학의 2017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25조6980억 원, 영업이익은 2조928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영업이익

이 47%로 급증했다.

LG화학은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외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하고, 기존 LG화학 생명과학 부문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LG화학은 회사채 1조 원 중 7700억 원을 국내외 주요 생산시설 확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LG화학은 고부가가치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말 여수공장에 30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크릴산 18만 톤과 SAP(고흡수성 수지) 10만 톤을 증설기로 했다. 또한, 4000억 원을 투자해 엘라스터머(고무·플라스틱 성질을 갖춘 고부가합성수지) 생산량 20만 톤을 증설 중이며, 대산공장 NCC에는 2870억 원을 투자해 에틸렌 생산량 증설에 나섰다.

경쟁사인 SK케미칼도 같은 날 SK유화를 흡수합병하고 백신 사업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분사 계획을 발표했다. 당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SK유화를 흡수해 디메틸테레프탈산(DMT)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제약부문을 분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SK케미칼이 화학·제약부문을 각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 화학업계는 북미 에탄분해공장(ECC)이 재가동되면서 에틸렌 공급과잉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유 사업을 확장해 화학 사업 공략에 나선 정유업계의 등장도 시장 내 경쟁자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LG화학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은진 화학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스페셜티나 수익성이 높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공급과잉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류정호 기자 jungh216@

DB하이텍, DB 제조계열사 자존심 지킬까

대우일렉 5년 만에 대우에 매각
10여 곳 남은 제조사 규모 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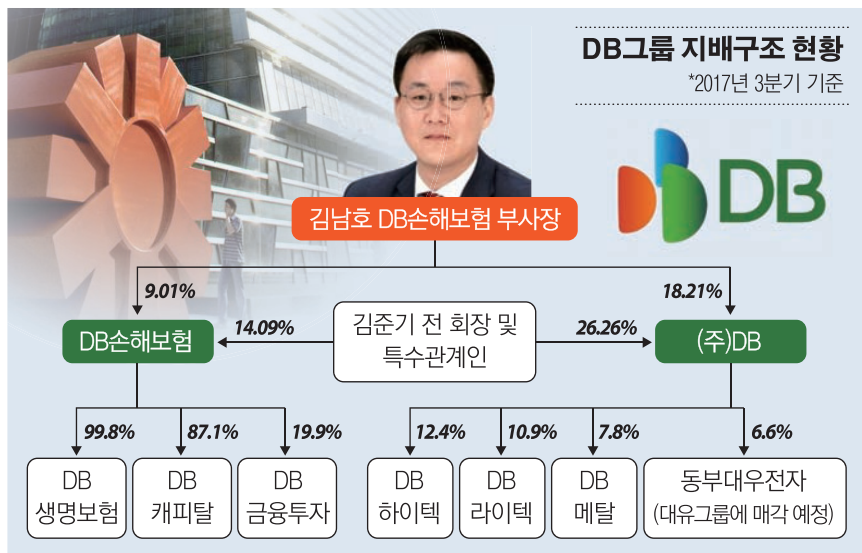
파운드리 전문 하이텍에 촉각
성장 더디지만 세계점유 10위

DB그룹(옛 동부그룹)은 현재 그룹 매출액의 90% 가까이 DB손보, DB생명 등 금융 계열사에서 내고 있다. 제조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금융 그룹인 셈이다. 그러나 DB그룹의 모태는 1969년 설립된 마루건설(현 동부건설)이다. 1990년대 들어서 금융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농업 등 사업 다각화로 덩치가 커지면서 그룹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때 6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계열 10위권 그룹이었던 DB는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뒤에는 사세가 급격하게 위축됐다. 1조3000억 원을 들였던 동부제철 전기로 사업이 절강경기 불황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후 동부건설 등 비금융 계열사는 연쇄적으로 자금난을 겪었고, 산업은행이 사전적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의 스프레스 등 제조업 주력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됐다.

DB그룹은 제조업 명맥을 잇기 위해 2013년 국내 가전업계 3위인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했지만, 다시 5년 만에 대우그룹으로 남게 됐다. 대우그룹 지주사인 대우홀딩스는 9월 동부대우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매출 1조5000억 원대의 동부대우전자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상 제조 계열사는 DB하이텍이 전부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를 제외하고 DB그룹에 남아 있는 제조 계열사는 10곳이지만, DB하이텍과 DB메탈 정도를 제외하면 규모가 작다. DB하이텍이 DB 제조 계열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DB하이텍은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렸지만, 2014년 흑자로 전환한 뒤 4년째 영업이익률 20%를 넘기고 있다. 이 회사는 시스템반도체 집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전문 업체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사물인터넷 시스템반도체 시장 수요가 커진 것이 강력한 성장 동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메모리의 다품종 소량 수요가 증가할수록 파운드리 업체의 수혜폭은 더 커질 전망”이라며 “파운드리 시장은 사이를 성향이 미미하고 IT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실적으로 지난해에는 1997년 창사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 1086억

원의 10%가 넘는 액수인 110억 원 규모다.

다만 최근 성장세는 경쟁 업체에 비해 좀 더디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파운드리 시장전망 자료를 보면 DB하이텍은 올해 매출 6억7600만 달러를 올려 시장점유율 1.2%(세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6억6600만 달러)보다 1.5% 높아졌지만, 중화권의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의 매출 증가율(6~12%)과 비교하면 다소 뒤처진 수치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6797억 원, 영업이익 1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17% 감소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둔화 및 환율변동 등의 영향을 받았다. DB하이텍은 올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등 신규 성장 분야에 기술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DB하이텍에 대해 “전 세계 8인치 파운드리 업체 호조가 지속 중이어서, 올해 실적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차 캐시카우 ‘K3’가 돌아왔다



6년 만에 풀체인지... 2세대 모델 ‘올 뉴K3’로 컴백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K3가 6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해 2세대 모델로 컴백한다.

기아차는 13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올 뉴 K3(사진)’의 보도발표회를 갖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이번 신

형 K3에 차세대 파워트레인인 ‘스마트스 트림’을 적용했다. 신형 K3는 현대·기아차가 약 5년을 투자해 개발한 ‘스마트스 트림’을 적용해 15.2km/ℓ의 경차급 연비를 실현했다. 이달 27일 공식 출시 예정인 신형 K3는

총 4가지 트림으로 운영되며, 트림에 따라 1590만~2240만 원에서 가격이 책정된다.

K3는 2012년 출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글로벌에서 약 173만 대가 팔린 기아차의 대표 캐시카우로 꼽힌다. 2016년에는 출시 이후 최대인 44만 대가 전 세계에서 팔렸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高비용·低생산성’ 늪 빠진 車 ‘코리아 엑소더스’ 시작됐다

현대·기아 국내 생산비중 뚝
10여 년 새 반토막으로 감소
완성차 올 판매 목표도 축소

현대·기아자동차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여 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자동차 산업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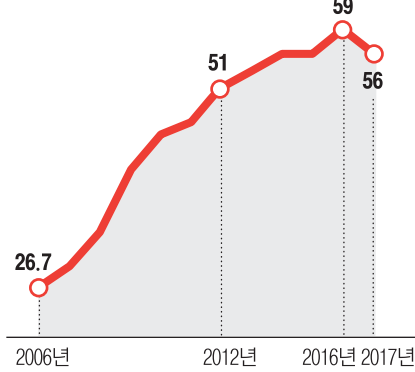
13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현대·기아차에 따르면 2006년 73.3%에 이르던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작년 말 기준 44%로 떨어졌다. 2012년(49%) 처음 50% 밑으로 내려간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비중은 이후 △2013년 45.7% △2014년 44.8% △2015년 44.8%를 거쳐 2016년 41%까지 추락했다가, 지난해 중국·미국 등 현지 생산 차량의 판매가 위나 부진했던 탓에 3%포인트 정도 반등했다. 다만 국내 생산이 2011년(347만

6175대) 이후 317만4230대(2017년)~358만8893대(2014년) 사이에서 등락하면서 정세 또는 감소하는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국가별 차 생산량(자국 내 생산만 포함·해외공장 생산 제외) 순위 집계에서도 한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 10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2년 연속 생산이 뒷걸음질쳤다. 세계 6위 한국의 지난해 국내 생산량(411만4913대)은 1년 사이 2.7% 줄어, 7위 멕시코(406만8415대)와의 격차가 불과 4만 대 수준까지 좁혀졌다.

이처럼 자동차업계가 해외 생산기지 확충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의 ‘높은 비용·낮은 생산성’ 구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으로 2005년과 비교해 83.9% 올랐다. 일본 토요타(9104만 원)와 독일 폭스바겐(8400만 원) 등 주요 경쟁업체를 웃도는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

현대·기아차 해외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중도 월등히 크다. 국내 완성차 5곳의 2016년 평균 임금 비중은 12.2%로 토요타(7.8%)나 폭스바겐(9.5%)과 큰 격차가 있다.

상황이 이렇자,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낮춰 잡았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 목표인 508만 대보다 적은 467만5000대로 잡았다. 기아차 역시 전년 대비 29만5000대 낮은 287만5000대로 올 판매 목표를 세웠다. 르노삼성자동차도 판매량을 낮게 잡았다. 도미니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수 10만대와 수출 15만 대 등 총 25만 대의 판매 목표를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

밸런타인데이·설맞이 이벤트 풍성

1분기 승부수 띄운 게임업계

설 연휴를 앞두고 게임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로 이용자몰이에 나섰다. 특히 이번 명절은 ‘밸런타인데이’까지 겹치면서 이를 접목한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모바일 게임 4종에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컴투스의 게임인 ‘골프스타’와 ‘낙시의 산’, ‘사커스 피리츠’, ‘소울서커’에서는 초콜릿과 하트, 사탕 등 밸런타인데이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과 스킨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인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과 ‘아크로드 어웨이’, PC온라인게임 ‘뮤 온라인’과 ‘R2’, ‘메틴’, ‘뮤 이그니션’에서 설맞이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용자들은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정 몬스터를 사냥해 얻는 보상형 아이템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다.

국내 빅3인 넷마블게임즈와 넥슨, 엔씨소프트 등을 포함해 와이디온라인, 네오위즈게임즈, 한빛소프트,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등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도 밸런타인데이·설맞이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에는 게임업계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긴 연휴 동안 휴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 접속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 일찌기 명절맞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1분기 실적 상승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벤트로 평소보다 유저들을 끌어모으면 이는 매출로 직결된다. 넥슨의 경우 지난해 중국 지역에서 춘절 당시 ‘던전앤파이터’의 이



벤트와 업데이트 효과로 1분기 실적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지난해 실적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약진이 두드러진 게임업계로서는 1분기 실적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져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설 명절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게임업체들이 유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벤트 성공 여부에 따라 유저들의 참여가 갈리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유통가 팀파워

GS홈쇼핑 데이터팀

“이쯤되면 이 상품” 데이터로 대박 예측

“영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문화를 만들 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일상화가 우리 팀의 목표입 니다.”

GS홈쇼핑에는 상품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해 다루는 데이터팀이 있다. 데이터의 현장 활용성이 중요시되면서 데이터수집, 개발,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부터 1년간 태스크포스팀(TFT) 형태로 운영되다 2016년 본격적으로 팀을 꾸렸다.

현재 팀장을 포함해 1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가진 장기가 다양하다. 데이터를 잘 다뤄 분석에 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잘 발휘하는 사람도 있다. 또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거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전문가도 있다.

“과거에는 상품을 팔고 난 뒤 ‘왜 안 팔렸을까’를 분석하고 사후에 그 원인을 찾아 다음 방송 때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날씨 탓인가, 졸업시즌 때문인가, 유행할 때문인가 등 세세하게 원인을 찾아 파악했지만, 외부변수는 통제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제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 전략을 세워요. MD와 PD, 편성전략팀 등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분석해 판매시기 등을 제시하고 판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김승태 팀장)

홈쇼핑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크게 소싱(Sourcing, 구매)과 셀링(Selling, 판매)으로 나뉜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 시장 트

수요를 예측한 만큼 초기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정호 대리)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해시 태그를 분석해 트렌드에 맞는 신상품을 기획하고, 판매상품 구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30대 화장품’, ‘연예인 화장품’ 등 키워드로 총 80만 개의 해시 태그를 분석해 상품기획에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

수 십만개 해시태그 분석 트렌드에 맞는 신상품 기획·판매전략 수립
접근·분석법 담은 부서별 교육 추진… 데이터 필요성 동기부여 전파

렌드를 파악하거나 발주 물량을 예측하는 분석을 수행할 때, 그리고 고객에게 적합한 판매를 위해 방송편성 등 TV 방송운영 방식을 결정하거나 모바일 판매 채널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예측하고 판매를 앞두고 있는 공기청정기 판매다.

“공급자 힘이 강한 유명브랜드 제품은 초기 물량 확보가 관건이에요. 지난해 연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공기청정기의 경우 중국의 12월 판매량이 우리나라 3월 판매량과 비슷하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3월에 오는 것이죠.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죠.”(강민아 대리)

데이터팀은 직원들에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 부여와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도 꾸준히 깨닫게 해 주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팀의 주요 미션이었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서별로 데이터 접근법과 분석 방법을 알려주고, 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합니다.”(김유경 대리)



GS홈쇼핑 데이터팀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photo@

“최근 질문들이 디테일해졌어요. 과거엔 ‘어제 왜 못 팔았냐’라고만 물었는데, 이제는 ‘올 여름엔 뭘 팔면 좋을지, 선글라스는 지난해 어떤 타입이 유행했고 뭐가 잘 팔렸는지, 3월에 조끼 론칭하는데 몇시에 팔아야 할지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자 등 사전 기획 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김승태 팀장)

데이터팀은 데이터 문 의와 분석 의뢰 등을 진행하는 상담창구이자 협업공간인 ‘D라운지’와 찾아가는 ‘데이터랩’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분석 도구인

BI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카테고리와 매출액, 나이 등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원하는 분석 결과를 쉽게 뽑아 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2월에 전사에 공유되면 시스템 활용하는 방법을 사업부와 팀별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이해인 차장)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팀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박세미 대리)

김민정 기자 mj@

보랏빛 물든 너... 더 끌린다

유통가 ‘울트라 바이올렛’ 열풍

‘11번가’ 키워드 검색 작년比 6배 ↑
향수·메이크업 제품 구매 고객 늘어



해태제과 ‘후렌치파이’

패션에서 시작된 보라색 열풍이 소비재 시장 전체로 점차 번지고 있다. 미국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2018년 ‘올해의 컬러’로 ‘울트라 바이올렛’(Pantone 18-3838)을 선정한 가운데 보라색(바이올렛)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SK플래닛 11번가에 따르면 11번가 사이트를 찾은 소비자들 사이 올 1월 한 달 동안 ‘울트라 바이올렛’과 ‘바이올렛’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는 총 104회, 472회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배, 5.5배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8일까지만 ‘바이올렛’ 검색 횟수는 94회나 됐다.

해태제과는 기존의 사과맛, 딸기맛 페스츄리 형태로 사랑받아온 ‘후렌치파이’ 신제품으로 진한 포도맛인 ‘후렌치파이 그레이프’를 두달 전 출시해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다. 보라색으로 무장한 패키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64접 페스츄리를 통해 바삭한 식감을 주면서 캘리포니아산 포도 농축액으로 만든 잼이 풍미를 더한다.

보라색 과일과 채소를 고루 넣은 동원F&B의 ‘덴마크 슈퍼 스무디 퍼플’도 눈에 띈다. 항산화 기능이 있는 블랙베리, 블루베리 등 보라색 과일

에 비트, 토마토, 적양파 등 보라색 채소를 더했다. 이 제품의 과일과 채소 함량은 250g으로, 이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국민 하루 평균 과채 섭취 부족분 200g을 한 컵으로 채울 수 있다. 패키지 또한 바이올렛 컬러인 이 제품은 설량을 날리지 않아 다이어트 음료로도 손색이 없다.

BYC패션 런제리 브랜드 셀핑크는 2018년을 맞이해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를 적용한 런제리 세트를 선보였다. ‘퍼플 레오파드 커벌 런제리 세트’는 신비로운 보라색 컬러에 메탈릭한 느낌의 포일 레오파드 원단과 망사 원단이 어우러져 화려하고 섹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성용 4분의 3겹 와이어볼드브라와 헴팬티, 남성용 아웃밴드 드로즈 제품으로 구성됐다.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MLB도 올 트렌드에 발맞춰 각종 보라색 아이템을 내놓았다. MLB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뉴욕 양키스 로고 볼캡과 캐릭터 디자인이 들어간 커브캡 등 모자와 함께 맨투맨, 원피스 등 의류까지 눈길을 끈다. 또 아동 스포츠캐주얼 브랜드 MLB KIDS에서는 파스텔톤의 퍼플 커벌 볼캡과 원피스, 배색 맨투맨을 출시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벨런타인데이도 ‘소확행’

케이크·도넛 등 미니 사이즈 디저트 인기



카페 드롭탑 ‘조각 케이크 4종’

벨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프로모션이 한창이다. 최근엔 가성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미니 사이즈 디저트를 비롯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카페 드롭탑은 최근 조각 케이크 4종을 선보였다. △딸기요거트 케이크 △딸기 그린티 치즈 케이크 △솔티 카라멜 뉴욕 치즈 케이크 △뉴욕 치즈 케이크 등 벨런타인데이에 맞는 다양한 맛의 제품들을 출시했다. 드롭탑 관계자는 “벨런타인데이 시즌에는 초콜릿 대신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거나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피크림 도넛 역시 한 입에 먹기 좋은 미니 도넛 3종을 14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엔제리너스는 벨런타인데이를 맞아 로아커 초콜릿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4일부터 엔제리너스 매장에서 바리스타가 제조한 싱글오

리진 커피, 초코 로아커 웨하스 스노우, 스트로베리 3종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 입 크기의 벨기에식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어스티드 프랄린 초콜렛’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벨런타인데이와인 ‘바바 로제타’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바 로제타는 알코올 도수가 5.5%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이블 전면 에 장미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핑크루비색을 띠고 있어 연인들의 로맨틱한 기념일에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바바 로제타 벨런타인 패키지는 바바 로제타 1병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미꽃 모양의 하트 초 2개가 포함돼 있으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서 1만2000세트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녹차에서 찾은 현대인의 체지방 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쉽게 늘고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고당류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을 돕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식습관 속 대사건강을 관리합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전화: 080-023-5454



VITALBEAUTIE

판 커지는 CMO... 바이오 新성장동력 부각

〈의약품유통생산〉

제약업계는 지금

신약 개발에 나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늘면서 고객에게 수주를 받아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의약품유통생산(CMO)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CMO 시장은 2015년 726억7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788억 1000만 달러로 커졌다. 2020년에는 1087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는 의약품 생산을 CMO 업체에 맡기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대신 그 비용과 전문인력을 신약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새로운 시설투자가 부담스러운 중소형 제약사, 경영 효율성을 꾀하는 대형 제약사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특히 비교적 공정이 간단한 화학합성의약품에서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바이오 CMO 시장은 큰 기회를 맞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가격이 하락하고 원가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제조사들에도 CMO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CMO 사업은 매출의 절반을 영업이익으로 쉼길 수 있는 알짜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신성장동력 분야로도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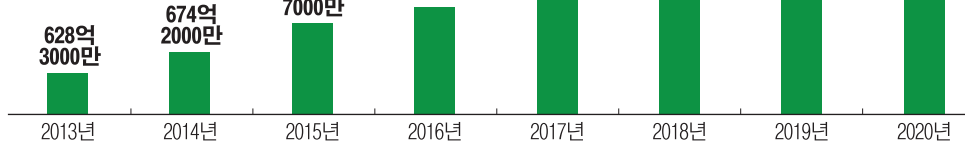
국내에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자본집약형 한국형 CMO 사업 모델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8·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18 셀트리온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서밋'에서 해외 3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 "유통 경쟁력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안들을 고려해 여러 국가의

글로벌 의약품 CMO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달러)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셀트리온 VS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증설 계획

셀트리온	- 1공장 10만 리터(증설 중), 2공장 9만 리터, 3공장 36만 리터(기존 계획 대비 2배 이상 확대) - 올해 상반기 중 해외 3공장 부지 선정 완료
삼성바이오로직스	- 1공장 3만 리터, 2공장 15만2000리터, 3공장 18만 리터(올해 하반기 시험생산) - 4공장 증설 검토 중

세계 의약품 CMO시장규모 2020년 1087억 달러 전망

국내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집약형 모델 주목

신약개발 위해 소규모로 발주하는 중소형 업체도 증가세

후보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통해 해외에 짓기로 한 제3공장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데 이어 3공장 건설 계획을 일부 공개한 것이다.

현재 해외 3공장 생산 규모는 36만 리터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이 공장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경우 1공장 10만 리터(기존 5만 리터에서 2배로 증설 중), 2공장 9만 리터를 합해 총 55만 리터 규모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직 3공장 착공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지 선정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건설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1공장 3만 리터, 2공장 15만2000리터, 3공장 18만 리터의 생산설비를 구축했다. 올해 4분기에 예정대로 3공장이 제품 시생산에 들어가면 총 36만2000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등극하게 된다. 회사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년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시장 수요를 가능해 본 후 인천 송도에 부지를 확보해 4공장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오리지널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셉틴')와 트루스마(오리지널 관절염치료제 '리툰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오리지널 '허셉틴'), 임팔디(오리지널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생산설비 증설은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누가 먼저 생산 능력을 갖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미국 시장에서 제품 허가 이후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업체들에도 CMO 분야는 기회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지만 신약 개발을 위해 소규모로 발주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서다.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동구바이오는 연질캡슐 등 다양한 제형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CMO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다. 2014년 153억 원에 머물던 CMO 매출은 2015년 169억 원, 2016년 218억 원, 2017년 3분기 누적 239억 원으로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현재 치매질환 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탐스 로신서방정' 등 모두 329개 품목을 위탁 생산 중인데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맞물려 치매치료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연질 캡슐 사업이 450%대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치매치료제 생산에서만 80억 원, 전체 CMO는 300억 원 정도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MO 전문기업인 바이넥스는 합성의약품 부문에서는 일동제약, JW중외제약, 휴온스 등을, 바이오의약품 부문에서는 에이프로젠과 제넥신 등 폭넓게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성장해 왔다. 중국 내 바이오 기업 수가 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중국에 기술이전, 중국 내 허가, 임상 등을 담당할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내에는 설립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당뇨병 공략 독심자 '란투스' 빗장 열어라

바이오 시밀러 국내 시판 허가 앞둔
상반기 승인덴 오리지널 등과 3파전

바이오 쏜인

사노피아벤티스의 '란투스(인슐린 글라진)'가 압도적 우위를 점해온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올해 독심자가 가세하면서 한바탕 주도권이 바뀔지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독심자가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한 인도 바이오콘의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인스트라이드(Instride1/2)'가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사노피아와 릴리-베링거인겔하임이 양분하고 있는 국내 인슐린 제제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독심자 관계자는 "당국이 권한을 가진 허가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상반기 중 허가 전망을 연기시킬 만한 특별한 장애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약 70억 달러(7조6000억 원)어치 이상 판매되는 사노피아의 인슐린 제제 란투스는 약 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시장에서도 과반을 점하고 있다. 유비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란투스 오리지널은 약 270억 원, 릴리-베링거인겔하임이 내놓은 첫 란투스 시밀러인 베이사글러는 약 5000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독심자는 2016년 11월 인도 바이오콘으로부터 란투스 시밀러의 한국 판권을 확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듬해 1월에는 란투스의 제형 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하며 마지막 장애물을 없앴다.

일정대로 독심자의 시밀러가 올해 상반기 중 허가를 받는다면 란투스 오리지널과 지난해 4월 국내에 첫 출시된 릴리-베링거인겔하임의 란투스 시밀러 베이사글러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세 번째 경쟁자로 합류하게 된다.

베이사글러는 2015년 5월 란투스 유럽 특허 만료 직후인 7월부터, 국내에선 지난해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오리지널 대비 저렴한 약가를 내세우며 오리지널의 시장점유율을 조금씩 공략하고 있다. 시판을 막 시작한 국내에서는 아직 오리지널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지난해 기준 1억5380만 달러(1667억 원)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다국적제약사 MSD가 공동 개발한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루스두나 넥스뉴'도 지난해 1월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7월 미국 승인을 받았다. 이에 비해 국내 출시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시밀러 시장에선 선두주자 1~2곳이 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온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시밀러 허가를 받는 독심자에는 다음 주자가 뛰어들기 전까지 선전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건강한 픽업

휴온스내추럴 '허니부쉬 스킨솔루션'

먹는 화장품 '허니부쉬', 무기질 풍부 피부건강 지킴이

밖에선 매서운 찬바람이, 안에선 건조한 히터 바람이 피부 표면을 메마르게 하는 겨울철에는 기초 화장이 무용지물이다. 에센스, 로션, 크림을 여러 겹으로 바르고 집을 나서도 순식간에 사막처럼 거칠거칠한 피부로 변하기 일쑤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바르는 화장품보다 속에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보충하는 '먹는 화장품'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끈다. 휴온스내추럴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은 플라센과 히알루론

건조한 겨울 '수분·영양 보충'
주름·탄력·보습개선에도 효과

산의 이너뷰티 계보를 잇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실험을 통해 기존 이너뷰티 제품보다 높은 효능을 증명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피부 관련 개별인정형 천연물 소재로 인증받은 안심 제품이기도 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원산지인 허니부쉬

(Honeybush)는 탄닌이 적고 카페인도 전혀 들어 있지 않아 그동안 주로 건강차로 음용돼온 식물이다. 철분,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다.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은 허니부쉬의 효능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제약사로서 휴온스가 보유한 발효 기술을 접목해 효능을 한층 높였다. 현재 한국, 미국, 유럽 특허 등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총 10단계에 걸친 추출과 농축,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합성 감미료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허니부쉬 스킨솔루션.

사진제공 휴온스내추럴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은 1일 권장량 400mg이 담긴 캡슐 4정을 매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약 3개월 이상 섭취하면 피부 주름, 탄력, 보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자외선에 민감한 피부를 지냈거나 자주 노출되는 사람, 눈가 등 잔주름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www.119medical.co.kr

즐거운 치과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Dental Clinic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남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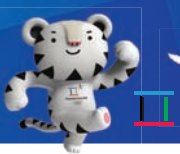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여기는 평창! **외제의 인물**오늘 **금** 예약 최민정 (쇼트트랙)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최민정이 훈련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女 500m 첫 애국가가 울린다
나를 믿고 희생해 주신 어머니를 위해…”유치부 스케이트대회서 재능 발견
예선전서부터 올림픽 신기록 수립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길 게요.”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최민정(20·성남시청)이 당찬 각오를 밝혔다.

최민정은 13일 오후 7시 강원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에 출전한다. 이날 경기는 준준결승전을 시작으로 준결승, 결승까지 한꺼번에 열리는 만큼 대한민국에 두 번째 금메달 소식이 들려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민정은 10일 쇼트트랙 여자 500m 예선에서 42초870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홀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최민정은 “재미로 타기 시작한 스케이트가 인생을 바꿔 놓았다”며 스케이트 외의 인연을 밝혔다.

여섯 살 무렵 아버지의 권유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최민정은 유치부 스케이트 대회에서 선수로서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는 중·고교 시절부터 일찌감치 ‘유망주’로 불렸고 성인 무대 데뷔 후 2015·2016년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하는 등 국가대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죠.”

그의 스케이트 인생에도 내리막길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 성적이 6위에 그친 것. 그는 이 시기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민정은 내리막길에 주저앉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성적을 바탕으로 한 세계랭킹에도 1위에 올랐다.

최민정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그는 선수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멘토로 ‘어머니’를 꼽았다.

최민정은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만 22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최강국이지만 아직 여자 500m 경기에서는 금메달이 없다. 이날 최민정의 발끝에서 한국 쇼트트랙의 새 역사가 쓰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미선 기자 only@

한국 선수 주요 경기일정(14일)	
	오후 7:00 여자 1,000m 이성화, 박승희, 김현영
	오전 10:00 페어 쇼트 프로그램 김규훈, 김강찬
	오후 4:40 여자 조별리그 3차전 남북한 단일팀
	오전 9:05 남자 예선 한국-미국
	오후 8:05 한국-스웨덴 김창민, 성세현, 오문수, 이기복, 김민찬
	오후 8:05 여자 개인 15km 안나 프롤리나, 예카테리나 예바쿠모바, 문지희, 고은정, 정주미
	오후 8:20 남자 2인승 박진용, 조정명

제2의 祖國을 위하여…



12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내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여자 추적 10km 경기에 출전한 한국의 안나 프롤리나가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도 난이도면 '연기'가 아니라 '묘기'



12일 오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팀이벤트 아이스댄스 프리스케이팅에서 이탈리아의 안나 카펠리나와 루카 라노테가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12일 피겨 팀이벤트 아이스댄스 프리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딴 캐나다의 테사 바츨와 스콧 모이어가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12일 피겨 팀이벤트 아이스댄스 프리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의 예카테리나 보브로바와 드미트리 솔로비예프가 고난도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스켈레톤 戰士들 “헬멧도 패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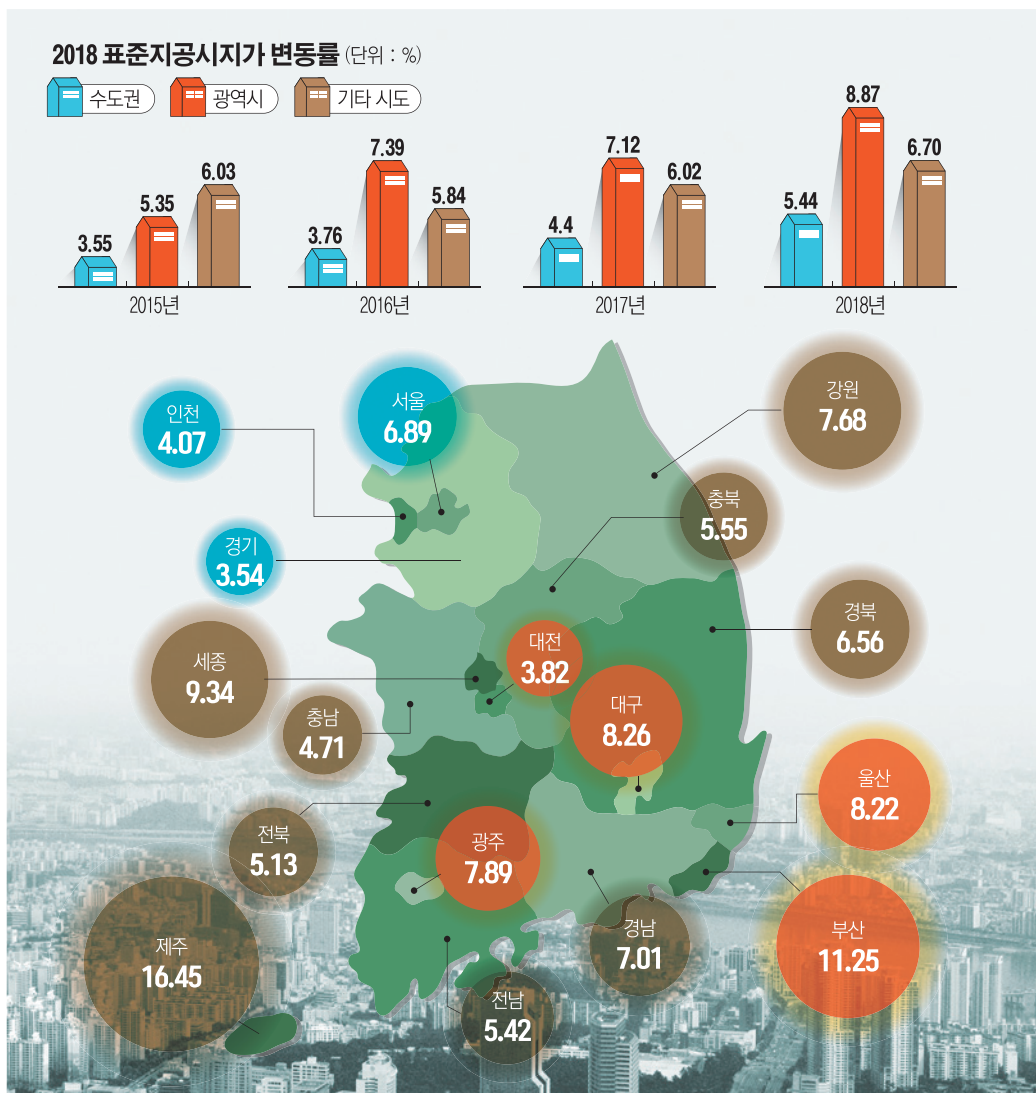


‘땅값’ 상승 10년 새 최고 …식지 않는 제주·부산·세종 열기

<16%>

<11%>

<9%>



2018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표준지 땅값이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다(1.08%p).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 도시는 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5.44%, 광역시(인천 제외)는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6.89%)의 경우 전국 평균(6.02%)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또한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제주, 부산, 세종, 대구, 울산(8.22%) 등 10개 시도가 전국 평균(6.02%)보다 많이 올랐고 경기, 대전(3.82%), 인천, 충남

전국 평균 6.02% 올라…서울 6.89% ↑

가장 안 오른 곳은 일산동구·파주·군산

인천·경기, 평균 못 미치는 3~4% 상승

(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올랐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 상승 지역은 올해도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

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이 9130만 원/㎡으로 2004년부터 15년째 최고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연남동 18.76%, 성수동카페거리 14.53%, 경리단길 14.09%, 가로수길 13.76% 등으로 서울 평균(6.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지역 개발 사업에 웃고 온 땅값

제주 '2공항' 부산 '센텀2지구' 호재 일산동구, 장항동 개발 미진해 타격

제주, 부산, 세종 지역의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재개발 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제주지역 표준지가 변동률이 16.45%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제주에 이어 부산(11.25%), 세종(9.34%)의 땅값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 내 최고 상승 지역 1·2위는 서귀포시(17.23%), 제주시(15.79%)로 각각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의 영향이 컸다.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도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13.51%), 해운대구

(13.23%), 연제구(13.2%) 순으로 지가 변동률이 높았다. 각 지역마다 남침동 재개발사업 진행,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연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진척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세종의 표준지가는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 증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

반면,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등 7개 지역의 땅값 변동률은 전국 평균(6.02%)보다 낮았다.

변동률 최하위 지역은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0.95%)로 조사됐다. 장항동 개발사업 진척이 미진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어 파주시의 변동률(1.13%)이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실수요 감소로 낮았다. 한편,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 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일자는 표준지는 13일이고, 개별지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기대감

지난달 매매·전세가 전망지수

지방은 물론 작년 1월보다 높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년 동월(85.5)을 크게 웃돈 119.4를 기록했다. 전국(96.7)은 물론, 부산(80.9), 대구(96.1), 인천(90.4), 광주(99.2), 대전(97.2) 등 지방 수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강북과 강남은 각각 122.6, 116.2를 기록했다. 이는 순서대로 전년 동월 수치 83.5, 87.4를 모두 크게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04.6으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역시 전국(94.1)은 물론 부산(82.5), 대구(94.7), 인천(87.3), 광주(102.2) 등 지방을 모두 웃돌았다.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향후 3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크게상승’, ‘약간상승’, ‘보합’, ‘약간하락’, ‘크게하락’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된다. 지수가 100이면 ‘보합’을 나타내며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이와 동일하다.

아파트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는 거래가 드물어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차익이 큰 지역일수록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불황에 떠들썩 줄고 CEO들 해외출장 대신 휴식

건설업계 썰렁한 설 연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차분한 분위기다. 설 상여도 사라지는 추세일 뿐 아니라 CEO들도 해외출장 대신 휴식을 택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추석 정기 연휴 이외에 1·2일의 휴무를 주지만 상여금 등의 지급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연휴 전날인 14일부터 휴무에 들어가고 대우건설은 연휴 다음 날인 19일 쉬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연휴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연차를 소진해 쉴 수 있지만 회사 차원의 휴무는 없다. 추가 휴무를 주는 건설사들도 대부분 집단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시장에서의 손실이 커지며

연차 사용을 권고해 수당 등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최근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예전 호황기 때 수백만 원에 달했던 상여금, 일명 ‘떡값’도 사라지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계열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범 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도 11만 원 상당의 아이파크몰 온라인상품권을 지급한다. SK건설은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에 상여금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봉 기준이 바뀌어 총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조정했다.

반면 GS건설과 삼성물산은 매달 받는 월급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며 한화건설은 설 차례비 3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HOLOGRAM LIVE PERFORMANCE KICKS

문화체육관광부
대관스포츠 공연지원사업
진흥선정작

SEASON 3

시즌3

MODERN TAEKWONDO

모던 태권도 킥스

2018. 01.12 | 02.25

올림픽공원 K아트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KTA, 공연제작: KICKS, 후원: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미디어 후원: 뉴스컬처, 협찬: adidas, 예매: NAVER 인터파크 티켓, 문의: 쇼온컴퍼니 (02)353-5811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쇼온컴퍼니 (02)-353-5811 단체문의 | 1588-0786

“트럼프 인프라 투자 계획은 사기”…재원 조달 구멍



시위대와 노조원들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인 워싱턴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모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1조5000억 달러(약 162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의 도로, 교량, 공항 등의 민영화 및 규제 완화 포함돼 있어 실현될 경우 대규모 구조 조정과 시민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5000억 달러(약 1643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청사진을 내놓자마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방안이 너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에 떠넘긴 트럼프노믹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며 시장의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예컨대 작년 5월 1일에는 “인프라 투자안이 2~3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만 키운던 계획안은 12일(현지시간) 55쪽짜리 문서와 함께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땅에 변혁이는 새 도로, 다리, 철도 등을 건설할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막대한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도로, 다리, 공항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 뿐 아니라 음용수와 폐수 시스템, 수자원, 에너지, 지방 지역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포괄하고 있다.

주목할 건 전체 1조5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중 연방정부가 10년간 2000억 달러만 투입하고, 나머지 1조3000억 달러는 주·지방 정부와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투입하는 20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주 정부의 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원된다. 농촌 지역의 보조금 형태로 투입되는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고, 300억 달러는 기존 인프라 프로그램에 쓰인다.

계획안대로라면 주 정부가 투자금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연방정부는 20%의 지원금만 제공하는 셈이다.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것은 또 다른 사기이며 정부의 기능을 사문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 영국 방송 BBC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은 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가진(주주) 및 지방 공무원과의 인프라스트럭처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1.5조 달러 중 80% 州정부에 떠넘겨 인프라 투자계획서 내놓자마자 논란
세금 부담 올라가고 재정건전성 타격

연방정부 부담 2000억달러 마련 위해
국립공원·고속도로·공항 민영화 유력

지금 조달 정책적 함의 없어 실현 난항
민주당 “트럼프, 국민의 기대 저버려”

판 받을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대규모 감세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인프라 투자는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 자금 압박을 받은 주 정부가 결국 국민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거나 휴게소 이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연방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 인프라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널드레이건워싱턴국립공항과 달레스국제공항을 비롯해 조지워싱턴기념공원, 다차선식 고속도로인 볼티모어-워싱턴파크웨이 등이 유력하다고 뉴욕포스트(NYP)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워싱턴 지역에서 더 나아가 남서부 전력 관리국, 서부 전력 관리국, 테네시 밸리 당국 등 대형 에너지 공급업체들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리서치업체인 컴퍼스포인트의 아이작 불란스키 애널리스트는 “이 계획안은 죽은 계획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계획안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했다. 지금 조달에 관해 정책적 합의가 없다는 점, 민주당이 25년 만에 유세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화를 앞둔 것, 입법 일정상의 난항 등이 그 이유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년 동안 텅 빈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엇갈리는 회비 =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건설업체와 중장비 업체, 시멘트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철강사 뉴코어는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한 63.44달러를 기록했고, 중장비업체 캐터필러의 주가는 전일 대비 2.06% 상승한 152.29달러로 마감했다. 캐터필러는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주가가 50% 이상 올랐다. 시멘트 공급업체 벌컨머티리얼즈는 전 거래일보다 1.73% 오른 127.16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주민 기자 aaaa3469@

美 선수들 ‘고향의 맛’과 작별

맥도날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과의 인연을 끝낸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6월 수십 년간 이어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제휴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는 2020년까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기에 계약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평창올림픽이 맥도날드의 마지막 스폰서십의 장(場)이 됐다고 12일(현지시간) CNN머니가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올림픽과 관련된 맥도날드 TV 광고를 볼 수 없으며, 올림픽 파크와 선수촌에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서는 것도 평창올림픽이 마지막이다.

맥도날드가 올림픽 철수를 결정한 것은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다는 올림픽 특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년 전 맥도날드는 올림픽 시작 전부터 파트너십을 내세우며 홍보 효과를 기대했다. 당시 존르위키 맥도날드 스포츠마케팅 수석 이사는 “우리 사업이 남미에서 이익을 얻을 좋은 기회”라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청률도 저조했다. 올림픽 중계방송사인 NBC의 시청자는 2012 런던올림픽 당시 평균 3110만 명이었으나 리우올림픽 때는 2580만 명으로 확 줄었다.

맥도날드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올림픽 스폰서로서 달성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글로벌 성장 계획을 위해 사업의 모든 측면을 재고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IOC와 논의해 다른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이스터브룩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이 된 2015년 이후 맥도날드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및 배송과 같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이크 페인 전 IOC 마케팅 이사는 맥도날드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오랜 기간 IOC의 공식



8일 오픈한 맥도날드 강릉 올림픽 파크 매장. 맥도날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스폰서십 계약을 종료한다. 연합뉴스

맥도날드 올림픽 스폰서십 철회
올해 평창까지만 계약 유지
리우올림픽 저조한 홍보 효과 탓
선수촌에서도 자취 감출 듯

후원사였기 때문이다. 맥도날드는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공급하며 올림픽과 인연을 맺었다. 1976년부터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부터는 올림픽 파크와 선수촌에서 매장을 운영해 왔다. 1984년에는 ‘미국이 이기면 당신이 이긴다’는 프로모션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리우올림픽에는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해 개회식에 보

내기도 했다.

맥도날드의 올림픽 스폰서십 종료는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보다 출전 선수들에게 더 아쉬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르위키 맥도날드 이사는 리우올림픽에 앞서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에 관람객에게는 인기 있는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올림픽 선수촌에 위치하는 것은 큰 매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림픽 선수촌 판매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 대부분은 맥도날드에서 ‘고향의 맛’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레스토랑 대신 마트 외식하는 일본

실질임금 마이너스…허리띠 졸라매
식품코너 음식, 매장 테이블서 즐겨
저렴한 ‘이트인’ 공간 넓히고 고급화

일본에서 카페나 패밀리 레스토랑 대신 슈퍼마켓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젊은이와 주부를 비롯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생긴 신풍속이다.

일본의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 등에는 ‘이트 인(eat in)’ 코너가 마련돼 있다. 원래 영어 ‘eat in’은 ‘집에서 먹는다’는 뜻이지만 일본에서는 다르게 쓰인다. 마트에서 산 식품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트 인은 쇼핑객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카페와 식당을 대신하며 젊은층의 아지트이자 가족 외식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트 인의 장점은 매장에서 직접 음식을 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값은 보통 200엔(약 2000원)대인 데 반해 마트에서는 그 반값이면 된다. 조리된 음식도 100엔부터 시작된다. 초밥과 도시락, 다양한 반찬이 있다.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에서 유명한 식당의 음식이나 디저트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트 인이 마련돼 있으면 원래 매장에 가는 것보다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기업으로서의 고객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며 편의성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다. 도쿄 내 백화점에 입점한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이트 인 공간을 만든 후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트 인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트들도 공간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고급화하는 추세다. 그동안은



휴일에 한 가족이 이트인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다. 니혼게이지신문

이트 인을 간소하게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소파와 테이블에도 신경을 써 패밀리 레스토랑과 비슷한 분위기로 꾸미고 있다. 일본슈퍼마켓협회 등 업계 3개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트인을 설치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회원사의 65.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협회는 전체 98개 매장 중 80곳 이상에 이트인을 설치하며 숫자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 일본 대형 슈퍼체인 ‘이온’은 50석 이상의 이트인을 마련한 식품 매장을 2020년까지 2016년 대비 2배인 약 150개로 늘린다.

이트 인 이용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어려운 가계 사정도 한몫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임금 상승효과를 억제한 탓이다. 니혼게이지신문은 이트 인 애용 현상은 싸고 편리하며 쾌적한 것을 원하는 소비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아마존 수백 명 감원…성장 기업으로론 이례적

본사 소매업 부문 명치 줄여
AI·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역량 집중

‘유통 공룡’ 아마존이 미국 시애틀 본사 등에서 직원 수백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12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ST)와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시애틀 본사와 글로벌 사업장에서 수백 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감원 대상은 주로 본사에 집중된다. 아마존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주로 아마존의 소매업 부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구조조정을 통해 알렉사, 아마존웹서비스(AWS) 및 디지털 엔터테

인먼트와 같이 성장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된 관리·감독 체계를 줄여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마존 대변인은 “연간 계획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우리는 회사 전체에서 수천 명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의 직원을 삭감하고 많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위해 우리가 채용하는 분야에서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의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몇 년간의 급속한 확장과 대조된다. 지난해 아마존은 홀푸드마켓 인수로 늘어난 9만 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마존 시애틀 본사의 직원은 2010년 5000명에서 현재 4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성장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팀이 있으며, 몇몇 팀은 너무 많은 직원을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엔지니어는 “아마존은 인구 과잉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아마존은 여러 부문에서 고용을 동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마존의 고용이 급격히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BC는 아마존의 구조조정은 제2본사 건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아마존은 제2본사 후보지 선정을 위해 북미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0개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아마존은 선정 도시에서 50억 달러(약 5조 4250억 원) 이상을 투자해 5만 명 이상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아폴로 신드롬’을 극복하라

많은 창업자들은 ‘벤처는 혼자 힘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혼자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며 혼자 끌고 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혼자 하는 벤처 활동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은 건 사실이다. 혼자 진행하다 보면 마켓과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 정보와 관점, 전문성이 제한적일 수 있고, 가용 네트워크가 적은 경우가 많다.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 사람의 전문성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진정한 열정과 최대의 노력을 보낸다 해도 실제 시장에서 의미 있고 지속력이 큰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창업자는 여러 면으로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량과 분야를 파악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강한 창업 팀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타트업 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그러나 전문성만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특히 아폴로 신드롬을 조심해야 한다. 아폴로 신드롬은 영국의 경영학자 메리디스 벨빈(Meredith Belbin)이 지적한 현상으로, 전문성이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공의 확률과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말한다.

초기 가설은 아폴로 우주선을 만드는 것처럼 난해한 일의 성공은 구성원의 전문성과 우수성이 결정한다는 것이었으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뛰어난 사람들의 집단은 오히려 비생산적 논쟁과 정치역학적 위험이 더 높아 일을 느리게 확률이 더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 그대로라 하겠다.

실상 초기 단계의 팀이 분해되

고 벤처가 좌초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이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적절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한 뒤 이런 팀원을 원만하게 해고할 방안을 못 찾거나 해고할 때 복잡한 지분(equity) 문제가 개입된 경우이다.

전문성과 개인의 네트워크 역량보다 더 중요한 팀 구성 요소는 벤처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과 방향성의 비전에 대한 열정적 공감과 확고한 믿음이다. 이는 거꾸로 최초 창업자가 팀원을 찾기 전에 먼저 벤처로 일구어 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미션(존재의 이유)과 굳건한 비전(추구하는 미래의 포지션)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미션과 비전의 확립은 반드시 큰 기업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사실 큰 기업들도 명확한 비전과 미션 없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팀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일수록, 미션과 비전을 공유할수록 팀원 간의 갈등과 탈퇴를 막는다는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벤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미래 지향점이 어디이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인지, 더불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고 굳건한 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과 행동지침이 벤처 조직의 문화로 무리 없이 내재화할 때 소비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더 부합하고 적절한 피봇의 방향성을 잡아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더욱이 벤처를 진행하는 동안 겪고 넘어야 하는 크고 작은 난관에 맞서는 경우, 특히 끝까지 끌고 갈 때 필요한 정신적 감정적 조절을 하는 경우에도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는 팀원들이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독일 수 있으며 마음을 가다듬어 다시 집중해 나가는 동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 일을 하는 동안 국제행사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단장 자격으로 동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한 적이 있다. 투표권을 가진 이들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여야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작지 않은 규모의 유치단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기업 회장 한 분이 일정 부분 이 유치단과 동행하게 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를 기획한 직원이 말했다. 가 보면 그 이유를 안다고.

정말 그랬다. 첫 방문 국가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 나라 총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 대기업 회장만을 모시는 것 같았다. 국제행사 건도 유치단장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이야기해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다음 국가도, 또 그다음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동계올림픽 聖火 뒤의 ‘숨은 숙제’

예정된 일정이 끝날 무렵 누군가가 인접 국가 한 곳을 더 방문하자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 나라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하루 이틀 만에 성사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 그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자신이 좀 알아봐도 되겠느냐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로부터 전갈이 왔다. 모레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고.

한편으로 뿌듯했다. 우리 기업들이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게 그지없었다. 그가 없이 유치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깊어졌다. 일이 잘 풀려 좋기는 한데, 이들 기업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사 유치가 그 기업에 도움이 되어서? 글쎄, 그럴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상대 국가와 그 관련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되는 약속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뭘까? 그냥 애국심에서? 이것 또한 글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뭘까? 금융 지원이나 인·허가 등 정부로부터 무슨 특권이나 특혜를 받기 위

해서? 예전이야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이 기업에 전화 한 통만 해도 경정유착이다 뭐다 하며 ‘게이트’로 번지는 세상이다.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두려움! 바로 그것 같았다. 특하면 횡령과 배임 등 결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넓게 적용되는 그런 죄, 그리고 그런 죄 위에 서술 퍼런 칼을 휘두르는 국가, 바로 이런 것이 이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으로 이런 일에도 앞장을 서는 것이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바로 이 두려움에 올라타 이들을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가, 또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인사가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또 다른 나라로 향하는 일행과 떨어져 귀국 길에 올랐다. 순방 결과는 좋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때의 그 기분 때문일까? 전혀 다르고 훨씬 더 큰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며 그때의 일이 생각났다. 우리 모두 다 안다. 동

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다른 기업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했을까? 국가 권력이 무서워 ‘보험’ 들 듯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거와 달리 이제 이 보험은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니다. 반드시 지불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검찰이 ‘다스’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일등공신을 말이다.

이제 기업들도 안다. 이 보험이 불량보험인지를.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국가권력의 칼이 선풍적으로,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고도 보험에 들 이유가 없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찌해야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고칠 수 있을까? 동계올림픽 성화 뒤에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있다.



귀성(歸省) 귀향(歸鄕)

설과 추석이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귀성객’이라고 부른다. ‘귀성’은 ‘歸省’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돌아갈 귀’, ‘살필 성’이라고 혼독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돌아갈 귀’를 쓰는 이유는 누구라도 알겠지만 ‘살필 성’ 자를 왜 쓰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省’은 사실 발음이 두 가지이다. ‘살핀다’

는 의미로 쓰일 때는 ‘성’으로 읽는데 ‘성묘(省墓)’, ‘반성(反省)’ 등이 그런 예이다. ‘생략(省略 略: 간략할 약)한다’고 할 때는 ‘생’으로 읽는다.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는 말이 있다. 각 글자는 ‘어두운 혼’, ‘정할 정’, ‘새벽 신’, ‘살필 성’으로 혼독하는데 부모님을 모신에 있어서 ‘어두워지면 잠자리를 잘 정해 드리고 새벽이면 편히 주무셨는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옛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는 기본 수칙이었다. 이처럼 부모님을 살피는 일은 돌아가신 후에도 지속되었다. 생전에 부모님을 살피 돌봤던 정성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묘(省墓: 묘를 살핌)이다. 그러므로 歸省이란 객지에 나갔던 자식이 부모님을 보살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계시는 대로 보살펴 드리고, 돌아가셨으면 묘소를 보살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귀성인 것이다.

따라서 귀성은 단순한 귀향(歸鄕)과는 다

르다. 귀향은 어떤 이유에서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면 다 귀향이지만 귀성은 부모님을 살피러 갈 때에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이다.

전통적 ‘효(孝)’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귀성의 의미는 퇴색하고 귀향의 의미만 남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아예 귀향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여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효(孝)를 구시대적 낡은 관념으로만 차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제주 게스트하우스 묵었던 20대 여성 피살 “‘혼여족’은 불안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관광객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유력 용의자 한 모(33) 씨를 쫓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낮 12시 20분께 제주도 구좌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A(26)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울산에 사는 A 씨는 7일 오전 8시 30분께 혼자 제주에 도착했으며, 가족은 이튿날인 8일부터 A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이에 A 씨 가족은 10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 광역수사대와 기동대가 수색·수사하던 중 숙소 인근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도중 A 씨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한 씨가 사라지고 연락 또한 끊긴 것을 확인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그를 찾고 있다. 경찰 위치 추적 결과 한 씨는 11일 오전 5시에 경기 안양역 근처에서 위치가 파악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한 씨가 안양시에 연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12일 오후 제주 경찰은 숨진 A 씨를 부검해 사인이 경부암박성질환사(목 졸림사)임을 밝혀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소식에 네티즌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

아یدی 'ohkw****'는 “‘혼여족’(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많이 이용하던데 조심해야 할 듯.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밤에 같이 모여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 후에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우려했다. 트위터 아이디 '@yes****'는 “진짜 이런 사건·사고 접할 때마다 사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용의자도 빨리 잡히길!”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nov1****'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열리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온종일 여행하느라 피곤한데 모르는 사람들과 무슨 파티를 하는지”라며 사건의 발단이 된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에 대해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tly0403@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우리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지문스캐너와 터치패드가 결합된 디지털락은 사용자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화성능 등 안전 필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락을 경험해보세요.

-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16자리까지 입력
- 지문 등록**
128개 까지 지문 등록
- 이중 잠금기능**
2개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 옛보기 방지가능**
비밀번호 앞/뒤에 하수를 넣어 노출방지
- 경보기능**
45도 이상 기울거나 충격시 경보음
- 마비기능**
틀린번호 5회 입력시 마비
- 감촉기능**
비밀번호와 소리를 감촉하는 기능
- 저전압 알림기능**
건전지 전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 알림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영업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공휴일 9:00~18:00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소핑몰 www.hd2.co.kr,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공무원연금제휴소핑몰, 씨제이몰, 신세계몰, 1300K, NH마켓, nsmall, 이마트, SSG, 하이마트,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티몬, 위메프, 예누리닷컴, 다나와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전공



9일 평창 올림픽이 개막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요새 한국 관련 뉴스가 많아졌다. 그중에서도 일본에서 크게 뉴스가 된 것이 아베 총리가 9일 밤,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일이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최고 간부와 직접 접촉한 것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베 총리는 김영남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일본)의 생각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납치 문제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한 생각을 전달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 관리들과의 비공식 접촉에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가 처음에는 평창행을 거절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개막식 참가를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외교적인

北核·위안부, 일본의 두 트랙 외교

성과를 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회식 때는 아베 총리의 바로 뒤에 김영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앉았지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아베 총리로서는 김영남과의 접촉으로 북한 측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한편 자민당의 차기 총재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은 10일 일본 TBS TV 방송의 ‘시사방담’ 녹화에서 평창 올림픽의 분위기를 말하며 “마치 북한이 주역으로 똥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올림픽을 주재하고 있나요? 마치 북한이 주역으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남북 간 접촉에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정치색이 짙은 올림픽은 처음이다. 북한이 여러 방법을 쓰고 있다”며 올림픽 이후 북한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대북 제재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월 1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방일한 네덜란드의 할버 자일스트라 외무장관과의 만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네덜란드는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고 북한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이기도 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일한 자일스트라 장관은 고노 외상과의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문제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두 외무장관은 앞으로 여러 국제회의의 의장들과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8일 군사 패레이드를 실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림픽 전날에 미사일을 과시했으므로 핵·미사일 개발의 뜻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이번 방한에 대해서는 75%가 넘는 일본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NN이 10일, 1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물었더니 “방문한 것이 다행”이라는 대답은 76.9%, “방문하지 말아야 했다”는 대답

은 19.5%였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지지한다”가 83.8%, “지지하지 않는다”가 10.5%였고,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이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 “우려된다”가 88.7%, “걱정하지 않는다”는 8.3%였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한·미·일의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가 74.8%, “지지하지 않는다”가 19.9%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앞으로도 아베 정권은 북핵 문제 해결을 내세워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측 이행을 촉구하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외교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자는 문재인 정권의 두 트랙 방식과 같은 방식을 일본 정부도 채택하겠다는 뜻이다. 한·미·일 공조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내용면에서 한·일 간 차이가 있다. 다만 두 트랙으로 한다면 항상 대화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길이 그만큼 다양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수완을 기대해 본다.

장효진의 이슈通
정책사회부 차장



속도 내는 검찰 내 성폭력 조사

검찰이 내부의 잘못된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스퍼트’를 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구성된 지 일주일 만에 전·현직 여검사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검찰 내 성(性)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짐작케 한다. 진상조사단이 지난주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출범 12일 만인 12일 오후 이메일로 접수한 피해 사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모 검찰 간부를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수사 인력을 충원했다. 애초 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포함해 6명이었으나, 황은영 부단장(고양지청 차장검사)과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 진상조사단 내 역할 분담의 경계도 보다 뚜렷이 했다. 서 검사 사건 전담팀과 검찰 내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지금으로서는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몇 개월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들의 사건 수사 동의를 구하기 위해 신뢰를 차곡차곡 쌓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조 단장의 판단 하나하나가 미칠 파급력은 굉장하다. 검찰이 조사 기간이나 범위에 못을 박지 않고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피해

자 보호다. 수사 과정이나 불리인드신 문 등 재판 방식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남몰래 고통을 참아야 했던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고초를 끼치는 일이다. 이 쏟아지는 유일한 범죄다. 근거도 없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미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두고 ‘진로’(進路), ‘방조’ 등의 모욕성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서 검사는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내 엄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역시 2차 피해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 성(性)이 다른 성에 피해를 당하고도 억눌려 지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수많은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에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진상조사단의 역할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가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안다. 이러한 상식이 통할 때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

js62@

객석

최 광 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동산 계약 후 解約 당하지 않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최근 심상치 않다. 이 때문일까, 매매계약 후 해약을 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인 방법, 다시 말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고서라도 매도인이 해약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전부 정산하는 소위 ‘원샷거래’이고, 두 번째는 통상 대금의 10%로 정하는 계약금의 비율을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돈의 성격을 계약금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금 10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수하는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기재하지 말고 그중 5000만 원을 계약금, 나머지 5000만 원을 중도금(내지 1차 중도금)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이다.

계약금은 대금의 10%이어야만 한다는 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식의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관념도 있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계약금은 대금의 몇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식의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계약 체결 시에 건네가는 돈 중에서 일부의 명목을 중도금이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는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계약당사자 쌍방 간 합의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계약서상에 ‘계약체결 이후에는 더 이상 해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행 착수의 이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약권에 관한 민법 565조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해약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오 예 린 산업1부/yerin2837@



글로벌기업 삼성 ‘왕관의 무게’

최근 한 해외 마케팅 쇼에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삼성 기자단으로 출장을 가게 돼 ‘삼성’이라는 글씨가 적힌 이름표 줄을 달고 부스를 돌아다니게 됐다.

그런데 부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은 내게 “Are You Samsung?”이라고 물으며 관심을 가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표에 적힌 ‘미디어’라는 글자를 보지 못하고, 삼성 직원으로 착각해 진지하게 부서를 물으며 이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만큼 삼성의 이미지는 막강했다.

미국의 유명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지난 100년간 아시아와 세계를 바꾼 5대 기업으로 ‘삼성’을 꼽았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 앞에 붙는 수식어와 글로벌 평판들이 국내에 있을 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 해외에 나가 경험해보니 ‘삼성’이라는 기업의 위치와 무게가 생각보다 더 높고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이런 삼성의 이미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다 5일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다. 경찰이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이진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검찰은 다스(DAS)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앞세워 8일과 9일 이틀 연속 삼성 수원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은 전 세계 사람들의 추앙받는 기업이 된 지 오래됐지만, 그에 걸맞은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 확립, 정경유착과의 단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다.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의미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왕관을 쓴 삼성이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신뢰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적인 과제가 됐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건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이유도 모르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나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화제의 신간

내 감정에 서툰 나에게

감정을 다스리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7단계 감정코칭

나는 오늘도 행복을 선택한다!

최현 지음 | 값 13,800원

감정 습관을 바꾸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들

- 생각, 행동, 감정 구분하기
- 감정에 대한 관점 바꾸기
- 관계 속 감정 습관 찾기
- 내 안의 불안감 받아들이기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지나간 과거와 작별하라
-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로봇태권V로 글로벌 VR 시장 선도”

롯데월드 어트랙션 이끄는 이정중 AVR개발 파트장

“해외 유명 글로벌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속속 개발되는 가운데 국산 캐릭터를 통해 한국 가상현실(VR)산업의 글로벌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로봇 태권V VR를 제작했습니다.”

롯데월드 어트랙션 연구실의 AVR개발 담당 이정중 파트장은 1월 말 롯데월드 내 VR존에 한국 대표 길러 콘텐츠인 ‘로봇 태권V VR’를 선보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로봇 태권V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홍보 및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롯데월드는 여러 국내 중소 기업과 협업해 AR, VR 콘텐츠와 어트랙션(놀이기구)을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롯데월드는 AR, VR 사업의 해외 수출과 협업 거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테마파크 운영사로 한정됐던 역할에서 벗어나 콘텐츠 개발자 및 판매자 역할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신규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 않다. 이 파트장은 “AR, VR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운데 일반 사용자에게 가장 접근이 용이한 분야인데 국내에서

콘텐츠 개발·판매 나설 채비

4차산업 한복판 있는 VR·AR

관련 법령 부족으로 성장 더뎠다

민간서 제도 정착 검토 해볼만

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령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AR, VR 콘텐츠는 시뮬레이터 구분에 따라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파트장은 국내 VR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를 운영하는 기업, 개발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를 설립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착시키고 자체 평가와 검증을 실시한다”면서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어트랙션실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원격 현장감(AR) 기반의 롤러코스터(아바타코스터)는 정부기관의 우수



이정중 롯데월드 어트랙션 연구실 AVR개발 파트장은 인터뷰를 통해 “테마파크 롯데월드는 VR, AR 기술을 통해 차세대 신규 미디어 분야와 끊임없는 연결성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에게 언제나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롯데월드

성과물로 선정돼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플라자의 문화 ICT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그는 “탐승자가 미니머쳐 롤러코스터에 탑승해 작은 아바타로 변신하면서 AR를 통해 거대하게 보여지는 실제 공간과 VR콘텐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프로토타입이 평창 올림픽 문화 ICT관에 전시 중”이라면서 “올림픽 개막 전 국내외 정부관계자 및 대사

관, 기자단이 방문해 호평한 바 있다”고 자랑했다.

이 파트장은 “최근 들어 산업계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정책 가이드라인 확립 등 다양한 산업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롯데월드도 VR, AR 분야에서 실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한국생산성본부 신임 회장에 노규성 교수 선임

한국생산성본부(KPC) 신임 회장에 노규성(사진) 선문대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생산성본부는 12일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에 노 교수가 임명됐으며 14일 취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민간기관으로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컨설팅, 자격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산성본부 회장 임기는 3년이다.

노 신임 회장은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연구원, 한국신용평가 팀장, 한국미래경영연구소 본부장 등을 거쳐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노 회장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디지털정책



회 회장도 맡고 있다. 지난 대선 땀 문제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정보통신미디어팀장,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약 개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성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중심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설명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본부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맞은 만큼, 미래 지향적 생산성 혁신을 선도해 국가 생산성 향상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젤리 기자 ellee@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에 대해 경영 감독을 책임지는 제5기 뉴스통신진흥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이사장에 강기석(사진) 전 신문유통원장을 선임했다.

제5기 뉴스통신진흥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강 신임 이사장 선출을 의결했



다. 충남 서천 출신의 강 이사장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에서 경영기획실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신문유통원 초대 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 운영위원, 건국대 연문홍보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세계 무대에서 경제협력 다지는 김동연 부총리

中 이어 우즈베키스탄 방문

국내 기업 해외 진출 타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가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진출 확장을 도모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글로벌 경제 협력의 내실을 다져 놓겠다는 각오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전날 우즈베키스탄 홀무라도프 부총리와 약 1시간에 걸쳐 사전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압축천연가스(CNG) 가스충전소와 지능형 미터기, 인쇄용지 사업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우즈베키 측에 전달했다.

우즈베키 측에서는 홀무라도프 부총리와



12일 우즈베키스탄 인터세셔널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참석자들이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흐메드호자예프 투자위원회 위원장, 대외무역부·정보통신개발부·보건부·혁신개발부 장관 등 10여 개 부처의 장관 및

차관들이 자리해 우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몇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약속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양국 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후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우즈베키 정부 담당부서와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즈베키 진출을 원하는 교육 콘텐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제약업계 기업들도 소통채널을 구축하면서 신규 진출이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1992년 한·우즈베키 수교 이후 14차례나 양국 정상은 상호 교차방문했다”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우즈베키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며, 우즈베키에 있어서는 한국이 5번째 교역국이자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우즈베키는 올해 수교 26년이 됐다”며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경제부총리 회의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장필 기자 roman@

안영률 지방선거기사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안영률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사진)를 12일 선임했다. 부위원장은 윤원구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이완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



스 칼리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장희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는 위원으로 활동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7월 13일까지 활동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 등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을 12일 위촉했다. 사진제공 방송심위

방심위, 제7회 전국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을 12일 위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위원장에는 권순택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안

효수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대외협력위원,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이장희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 김민준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6월 13일) 후 30일 뒤인 7월 13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두산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 두산

두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억

두산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완석 ㈜두산 부사장과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 부사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홍비 기자 dragonfly@



2일 제3회 롯데면세점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밥 나눔 행사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부장, 장선옥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최유 스님,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왼쪽부터) 등 관계자들이 후원증서를 들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창립 38주년 기념 전국 릴레이 봉사

롯데면세점은 창립 38주년을 기념해 전국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13일까지 장선옥 대표이사를 비롯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제

주시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아 도시락과 후원금을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서 롯데면세점은 약 2500만 원 상당의 쌀과 기금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급식비와 난방비, 노후시설 교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부음

▲김영수(이데일리 금융부장)씨 모친상 = 1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27-7500

▲백상태(한국예탁결제원의결권서비스부 팀장)씨 장모상 = 12일, 일산백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31-910-7444

▲노영근씨 별세, 진용(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부친상 =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후 1시, 02-3010-2000

▲장인출씨 별세, 병섭(대전경찰청 홍보계 경감)씨 부친상 = 12일, 대전 대청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42-587-4449

독도의용수비대 이규현 대원 별세

독도의용수비대 이규현(사진) 대원이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이 대원은 1925년 울릉에서 태어나 평생 독도 수호에 몸 바쳤다. 1954년 4월부터 독도의용수비대로 활동했다. 이후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며 독도 수호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1996년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맞서 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대원 33명이 결성된 단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오명준 △기술혁신기반 이찬영 △소재부품혁신 전계영 △국제협력 정책학

◆부산항만공사 <부장> △홍보부 최동업 △항만정책부 김기주

◆부산대 △대의교류본부장 남택현 △도서관장 △기록관장 이수상 △캠퍼스기획부처장 이인원

◆삼성생명 <승진> △부사장 김학영 이승재 △전무 김용관 박종문 반기봉 임법철 조일재 최인철 △상무 고상희 고혜진 김태선 박종진 서우상 송상진 윤광호 조태현

◆삼성화재 <승진> △부사장 이범 장석훈 △전무 남대희 배태영 이두열 이상봉 △상무 김일명 김준호 남재욱 노현호

이규윤 임규삼 최성연 한종혁 ◆주간조선 △편집장 정장영

올 설 선물도 TS삼푸가 대세

Trust
SINC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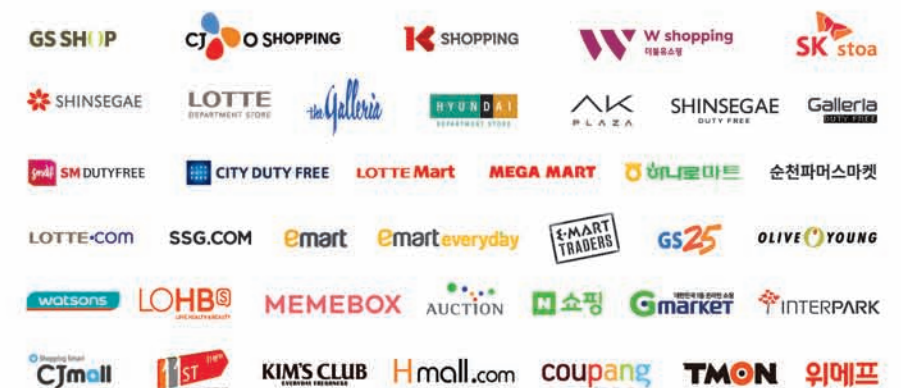
꼭꼭 감아라
TS로
감아라



TS제품



TS삼푸 선물을 살 수 있는 곳



※ 특판문의 : BG글로벌 070-8637-3843

TS모델 황치열, 송지효, 차인표

KONEX 코넥스상장법인
LISTED COMPANY

탈모닷컴 talmo.com

요즘 잘나간다는 중소형株 펀드에 설 상여금 물어볼까

설 명절 재테크

코스피지수가 1월 말 처음으로 26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2400선까지 추락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우리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오랜만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것만 같았던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성과급과 명절 떡값, 세뱃돈 등 투자 여윌돈은 늘었지만, 현재 증시의 방향성이 모호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기 때문에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펀드가 올해 빛을 볼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와 바이오주 위주의 투자를 검토한다면, 다음 명절쯤에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잘 때 사자”~ 주식형펀드 순유입 지속 = 연초 이후 주식형펀드의 대규모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발 충격에 따른 글로벌 증시 조정에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주식형펀드로 저점 매수를 노린 자금이 물리고 있는 것이다.

설정액 10억 원 이상 주식형과 채권형펀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형펀드는 최근 1주일 사이 5000억 원가량 설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 역시 설정액이 4000억 원 가까이 유입되면서 최근 1주일간 국내의 주식형펀드에만 9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표 중소형 주식형 펀드 수익률

펀드명(약어)	펀드수익률(6개월)	패밀리 자금유출입(6개월)
NH-AmundiAllset성장중소형주(주식)A1	4.02 %	3043억 원
신영마라톤중소형주[자](주식)A	1.18 %	2193억 원
한화코리아레전드중소형주[자](주식)C-A	4.43 %	437억 원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자](주식)C-C1	7.70 %	191억 원
한국투자중소밸류[자](주식)(A)	6.54 %	15억 원
신한BNPP뉴그로스중소형주[자](주식)(C-A1)	7.99 %	337억 원
교보약사위대한중소형밸류[자](주식)A1	11.25 %	160억 원
삼성클래식중소형연금[자](주식)-C	8.72 %	3억 원
미래에셋소독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전환형[자](주식)C-C	8.26 %	6억 원
신한BNPP뉴그로스중소형주[자](주식)(C-C1)	15.38 %	7억 원



주식형 펀드, 자금 순유입 지속

“잘 때 사자”... 1주일 새 9000억 몰려
제약·바이오 중심 중소형株 펀드 강세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등 기대감 ↑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소형주펀드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바탕으로 중소형주펀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향후 중소형주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닥이 강세를 보

이면서, 중소형주펀드로 자금 유입도 빠르게 진행됐다. 중소형주펀드는 2015년 중소형주 장세로 자금 유입이 집중됐으나, 2016년 코스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지부진한 자금 흐름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소형주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중소형주펀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인기 중소형주펀드 살펴 보니 = 가치주와 배당주 운용으로 유명한 신영자산에서 지난해 7월 ‘신영마라톤중소형’을 출시했다. 중소형주펀드의 상대적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과에 대한 신뢰감으로 ‘신영마라톤중소형’은 출시 4달 만에 운용자산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신영자산은 출

인기 중소형주 살펴보니

‘신영마라톤...’ 4달 만에 운용규모 톱3
‘NH-Amundi...’ ‘한화코리아...’ 등 인기
4차 산업혁명·사드갈등 완화 잇단 호재

시 전부터 중소형주펀드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 운용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서면 소프트클로징(신규 가입중단)을 하기로 밝혔고, 같은 해 11월 24일 ‘신영마라톤중소형’을 소프트클로징하기로 결정했다.

‘신영마라톤중소형’ 외에도 ‘NH-AmundiAllset 성장중소형’, ‘한화코리아레전드중소형’, 한국투자중소밸류’ 등의 중소형주펀드도 자금 유입이 늘

어나는 인기 펀드다. 4차 산업혁명과 제약·바이오 업종의 재평가, 사드 갈등 완화 등도 중소형주펀드에 호재가 되고 있다.

액티브주식펀드는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성 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형주펀드는 오히려 투자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상승폭이 작았던 중소형주펀드의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양한 전략의 중소형주펀드 = 우리나라 중소형주펀드 중에서 운용자산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펀드는 8개이다. ‘KB중소형주포커스’와 ‘삼성중소형 Focus’의 운용 규모가 가장 크며, ‘신영마라톤중소형’이 출시 4개월 만에 운용 규모 ‘톱3’에 진입했다.

중소형주펀드는 운용 전략에 따라 대형주 편입 비중이 펀드마다 상이하다. 삼성전자, KB금융 등 대형주 편입이 가능한 중소형주펀드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에는 투자하지 않는 펀드도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전략의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임명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추가 대책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중형주의 상대적 강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중소형주펀드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운용사 마케팅담당 관계자는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증시가 갑자기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자금이 주식형펀드에 몰리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만큼, 이에 투자한다면 내년 명절에 쓸쓸한 보나스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시종 기자 ssj@

길지 않은 연휴에 달라진 ‘명절 수혜주’

‘단거리 국제선’ 제주항공·진에어 등 LCC株 주목

유통 신세계그룹 ‘이커머스사업’ 대규모 투자 유치 MOU

영화 CJ CGV ‘블랙팬서’ 등 개봉 앞둔 실적 모멘텀 풍부

2월 설 연휴(15~18일)가 다가오며 명절 수혜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명절 수혜주로는 항공, 여행, 유통, 영화 관련 업종이 꼽힌다. 올해는 짧은 명절 연휴로 인해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명절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진단이다.

올해는 특히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LCC(저비용항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설 명절이 길지 않아 장거리보다는 LCC들이 비교 강세를 보이는 단거리 국제선의 성장에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LCC의 단거리 국제노선 점유율은 41.3%를 기록하며 2017년 4월(41.1%) 이후 고

점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대표 LCC의 실적 호조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제주항공은 지난해 B737 5대가 추가됐고, 올해는 8대가 순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급(ASK)이 15%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 연구원은 “기재 확대는 매출 증가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위원가(CASK) 개선에도 일조할 전망”이라며 “올해는 수익성의 추가 개선에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신민석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는 대형기인 B777-200을 4대 보유 중이며, 올해 1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며 “일본과 동남아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입,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3월 발권시스템 교체로 수수료 하락이 예상되며, 좌석 선택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된다”면서 “올해 진에어의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067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유통 업종에서는 신세계, 이마트를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명절 수혜주에다, 실적 모멘텀 역시 풍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6일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투자운용사 2곳과 이커머스사업 성장

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신세계그룹의 이 같은 결정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및 향후 투자지출(CAPEX)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온라인 사업 가치의 재평가로 양사의 기업가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전통적인 명절 수혜주인 CJ CGV도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2월 명절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 박스오피스가 흥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운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CJ CGV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

가한 4541억 원, 영업이익은 139.3% 늘어난 426억 원을 각각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다”며 “베트남 영업이익이 1억 원에 그쳤지만, 중국과 터키 시장에서 고수익성의 매점, 광고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큰 우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내 인건비 상승이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강력한 인건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강력한 비용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블랙팬서’를 시작으로 여러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모멘텀도 풍부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 mj@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70年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비타민 전문기업
고려은단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DSMA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 독점계약 | QUALITY 인증마크 획득 | GMP 인증! 철저한 품질관리



고객센터 080-277-0006 | www.koreaeundan.com

명절 기간 ‘非대면 계좌’ 트고 세뱃돈 받자

‘설 마케팅’ 분주한 증권업계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다양한 명절맞이 마케팅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며 간편하게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연휴 기간을 공략하기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연휴 아간에도 주식 계좌 ‘똑딱’·비대면 마케팅 활발 = 각 증권사는 1년에 두 번뿐인 명절 연휴를 공략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영업일, 영업시간의 제약 없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미래에셋대우는 업무 외 시간(오후 6시~오전 9시)에 다이렉트 비대면 주식 거래 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 편의점 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 외 시간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해의 주식까지 1주 이상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과 50만 원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사실상 평생 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곳도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휴먼 포함)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식 거래 수수료를 100년 동안 면제한다. 아예 현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계좌 개설 시 축하금 1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말까지 100만 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면 현금 4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 계좌는 개설 절차가 간편한 만큼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유안타증권은 타사 주식을 유안

설 연휴 기간 증권업계 이벤트

미래에셋대우	비대면 계좌 거래 시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100만 원·50만 원) 증정
하이투자증권	신규·휴먼고객 비대면 계좌 개설 시 100년간 수수료 면제
한화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100만 원 잔고 유지 시 5만 원 지급
유안타증권	타 증권사 주식 입고 후 거래 시 최대 60만 원 현금 지급
신한금융투자	'스톡기프트' 서비스로 주식 선물하면 각종 ETF 증정
키움증권	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메달 지급하는 '동계 페스티벌 이벤트'

미래에셋대우·하이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백화점 상품권 추첨·수수료 면제 이벤트

신한금투 ‘스톡 기프트’, ETF 주식 증정 키움증권, 거래액 따라 메달 ‘동계 이벤트’

타증권의 비대면 계좌로 대체 입고한 뒤, 매매거래를 하면 최대 현금 60만 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투자증권은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세뱃돈 대신 앱으로…주식 선물 이벤트도 =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함께 활용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투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식과 ETF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톡 기프트(주식 선물하기)’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톡 기프트’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주식과

ETF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과 ETF를 선물하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TIGER원유선물ETF’ 1주를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추가로 ‘KODEX200ETF’를 준다. 또한 선물 받은 주식을 받고자 비대면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KODEX삼성그룹주ETF’ 1주를 준다.

현주미 신한금융투자 디지털사업 본부장은 “졸업과 입학 선물이나 세뱃돈을 준비하는 고객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는 것처럼 간편하게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며 “자녀의 경제적 사고와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스마트 아이템으로 널리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친 만큼 키움증권의 ‘동계 페스티벌 이벤트’도 관심을 끄는 마케팅이다. 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메달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획득한 메달은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매주 5명을 추첨해 아이패드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벤트 최종 누적 메달 1, 2, 3등에게는 골드바 등을 증정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올 설엔 자녀에게 돈 대신 ‘어린이펀드’

투자 수익 올리며 경제 관념 키워…長期 수익률 안정적 펀드 찾아야

설날을 맞아 자녀들의 새해 선물이 고민이거나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맡아줄지 고민인 부모라면, ‘어린이펀드’는 어떨까?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꽤 훌륭한 수익률까지 쟁길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어린이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8.19%를 기록했다. 또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30.32%에 달했다. 코스피지수 1년 수익률(14.12%), 5년 수익률(11.38%)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펀드 가운데 어린이, 아시아,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약 20개다. 이 중 최근 5년 수익률 기준으로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가 64.54% 기록해 가장 ‘잘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 펀드(54.78%)가 그 뒤를 이었고, ‘신영주니어경제박사’(51.55%), ‘한국투자한

국의힘아시아사랑적립식’(46.87%)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어린이펀드는 자녀가 커가는 동안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을 주식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어린이펀드를 찾는 부모 대부분 자녀의 교육 자금이나 결혼 준비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수익률을 확인하는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내는 펀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설정액을 가진 펀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뒤 이후 자녀가 출생하면 증여로 간주돼 원금과 수익에 과세하게 되지만, 어린이펀드는 이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가 되는 10년 단위 2000만 원까지, 만 19세 이후부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최근 5년 수익률 상위 어린이 펀드 (8일 기준)

펀드명	설정액	수익률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82억 원	64.54%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1(주식)A	295억 원	54.78%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 5)	196억 원	51.55%
한국투자한국의힘아시아사랑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C-F)	17억 원	46.87%

※ 출처: 에프앤가이드

자녀의 금융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펀드의 운용보고서 경우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펀드 수익률과 펀드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일부 어린이펀드는 어린이 경제교육이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어린이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 대장정’을 매년 개최한다. 매년 500명 정도를 선발해 해외 기업과 대학들을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어린이펀드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환매하는 최근 증시 변동성으로 단기 수익률이 떨어진다 해도 이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펀드를 고를 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세뱃돈 ‘세 배’로 불리려면…

低금리·低성장 시대 재테크 ‘3% 이상’ 고배당株 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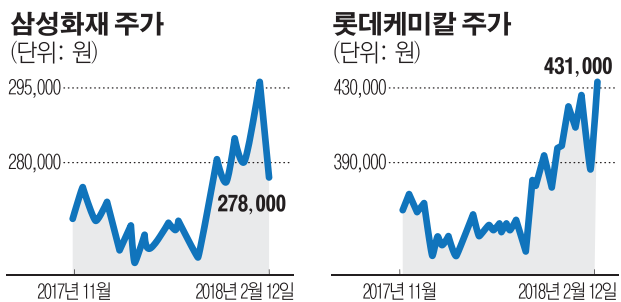
삼성전자 2배·삼성물산 3.6배 배당 확대 밝혀 증권업계 “실적 상승 기대…은행·정유株 추천”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하면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배당에 나선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배당주를 추천 종목으로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부를 축적하려면 배당주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가족 단위 투자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배당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이 배당을 3.6배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높아진 배당 여력과 주주 요구를 바탕으로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기업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월별 수익률을 보면, 연말에 부진했다가 1~4월에 성과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당수익률 3%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주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실적이 좋을수록 배당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 중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의한 순이자 마진 상승 기대감이 높고 있는 은행주와 정제 마진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정유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언급됐다. 실제 삼성화재는 2017년 주당 현금 배당금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44.4%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배당 수익률은 3.7%에 달했다.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5.5%에 달했던 삼성카드 역시 배당성향을 60% 이상 유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 메리츠화재, DGB금융지주 등이 올 초 배당 기대감이 유호한 대표 종목으로 추천됐다. 정유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혔다. 이 회사는 최근 주당 배당금을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4000원에서 160% 이상 상향됐으며, 이후에도 단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성향 확대는 그룹 정책”이라며 “롯데케미칼은 분사 실적 기준 배당성향을 30%까지 올리고, 자회사 타이탄은 50%로 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등 비록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성현 연구원은 “배당 성장주는 현재 주가에 일회일비하 기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길 권장”이라며 “높은 배당 성장이 해당 주식의 장기적 실적 성장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4차 산업혁명 시대,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살아남는다!

은행의 종말이 시작된 지금, 금융의 미래를 먼저 목격하다

금융혁명 2030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과 은행 스타트업까지 미래 금융의 모든 것을 담다!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증권사명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CEO	유상호 사장	김해준 사장	권용원 전 사장	최희문 사장	나재철 사장	김원규 사장
임기	11년	10년	9년	8년	6년	5년
순이익	5244 (121.5%)	749 (20.28%)	2402 (33.5%)	3552 (39.9%)	1206 (63%)	3496 (48%)
ROE	12.20%	9.60%	15.50%	10.70%	6.40%	7.20%

(단위: 억 원, %) ※ 출처: 금융투자협회 및 각 사,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임기 5년 이상 채운 최고경영자〉

長壽 CEO 증권사, 실적도 빛났다

유상호 사장 2007년부터 首長 맡아
한국투자증권 작년 순이익 121% 증가
교보·키움·메리츠증권도 순익 확대
‘중장기 비전 위한 임기 연장’ 설득력

장수 CEO(최고경영자)가 지휘하는 증권사들이 수익성도 월등히 좋았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순이익 증가율이 평균 50% 이상을 기록했으며,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ROE: 순이익/자기자본)도 10% 안팎의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가 거론하는 ‘중장기 비전을 위한 CEO 임기 연장’에 대한 주장이 어느 정도 수처로 입증된 셈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키움증권·교보증권 등 CEO 임기가 5년을 넘은 증권사들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얻은 순수입을 의미하는 ‘순이익’과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ROE’ 성적

이 모두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증권업계에서 가장 오래 CEO를 맡아온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21.5% 늘어난 5244억 원을 기록해 1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았으며, ROE도 12.2%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IB의 ROE가 10%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는 위탁매매(BK)부문, 자산관리 부문(AM), 투자은행부문(IB), 자산운용부문(Trading)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유 사장의 연임도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10년째 김해준 사장이 이끄는 교보증권 역시 전 사업부문의 영업 호조로 수익 구조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4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28% 늘었다. ROE 역시 중소형 증권회사들 가운데 높은 수준인 9.6%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된 권용원 전 사장이 9년간 이끈 키움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3.5% 증가한 2402억 원이었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10대 증권사 중 가장 작지만, ROE는 최고 수준인 15.5%로 집계됐다.

아울러 8년째 최희문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메리츠증권증권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39.9% 늘어난 355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ROE도 10.7%로 두 자릿수대에 올랐다.

이 외에도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6년)과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5년)도 지난해 양호한 경영 실적을 내놨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20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63% 상승한 실적을 보여줬다. NH투자증권은 운용과 이자수지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한 349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단, ROE는 7.2%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사드 해빙무드’에 엔터株는 봄소식

IHQ, 드라마 ‘당참사’ 중과 판매 계약

화이브라더스, CCTV 관계사와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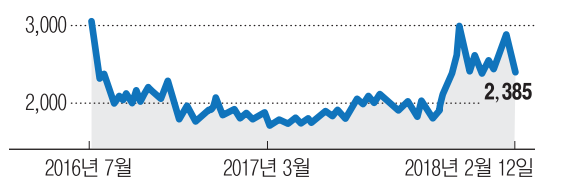
엔터 상장사의 주가하락 요인으로 꼽혔던 ‘사드 리스크’가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관련 엔터 기업들의 잇따른 계약 발표가 이어지자, 주가도 힘을 얻으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제작사 IHQ는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중국 심진텐센트에 공식 판매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에 판매된 첫 번째 작품이다. 사실 IHQ와 심진텐센트의 수출 계약은 지난해 1월 진행됐다. IHQ는 영상프로그램 독점 라이선스 계약으로 공식했지만, 계약 상대와 콘텐츠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 업체들이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공개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IHQ가 중국 판매를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사드 이슈로 냉각된 분위기가 많이 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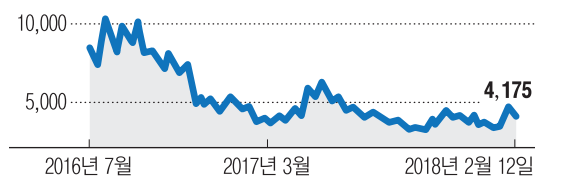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중국 허판라이브와 손잡고 신인 발굴에 나선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허판라이브는 중국의 유명 모바일 플랫폼으로 총사용자 수는 1570만 명에 달한다.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최근 허판라이브에 관련 콘텐츠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로 이달에만 33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이에스에이는 중국 엔터 업계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CCTV의 관계사인 영락연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

IHQ 주가 추이 (단위: 원)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주가 추이 (단위: 원)



다.

관련 주가도 상승세다. IHQ는 지난해 11월 22일 3255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종가 2300 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사드 여파로 1600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했던 점과 비교할 때 40% 이상 상승한 수치다.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3475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한 달도 안 되어 20% 이상 급등했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HQ의 회당 평균 수익은 40만 달러(약 4억3000만 원)로 사드 전 고점과 동일하다”면서 “사실상 한-중 동시방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이 한국 콘텐츠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 갔다는 점을 볼 때, 중국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수요는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스톡&피플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시황 분석 4월에 보고서 발간하며 업계 차별화”

“글로벌 부동산 분석에 특화된 리서치센터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이르면 4월에 선진국 부동산 시황을 분석한 첫 보고서를 선보일 생각입니다.”

올해 취임 2년차로 접어든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사진)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권업계의 핵심이었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리서치센터에서 차별적으로 제시할 만한 분야가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부동산과 금융을 양대 축으로 한 대체투자 전문 증권사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작년 1년간 대신자산운용, 대신F&I 등 자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만든 부동산 금융 상품도 5000억 원 이상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대신증권은 이를 위해 이달 초 글로벌부동산 팀을 공식 신설했다. 2분기 중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부동산 시황을 분석하는 첫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세금 문제나



국가별 부동산 제도, 업계 트렌드 등 각종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가 생각하는 올해의 도전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 센터장은 전체 WM(자산관리) 전략을 위한 하우스뷰를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인지 즉각적인 진단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직관적 판단을 도울 방침이다.

WM(자산관리)부서의 공급증과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맞춰가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내부적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국 52개 지점을 일일이 방문하며 소통에 주력한 지난 1년, 그는 “후회 없이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자산운용업계, 해외 대체투자부문 강화

KB운용 ‘조직개편’·한화운용 ‘펀드 출시’

자산운용업계가 해외 대체투자 부분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이 고평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이달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해외부동산운용본부를 신설했다. KB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문가로 통하는 이현승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영입, 2007년 뉴욕 부동산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냈던 실패를 딛고 대체투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신설된 해외부동산운용본부에 2개 팀을 배치하고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진태 부동산팀장도 영입했다. 지난해 가스발전, 신재생발전, 담수화 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9건의 신규 펀드(7800억 원 규모)를 설정했는데 올해에도 관련 펀드 설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이달 5일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를 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체자산 투자가 이제까지 기관이나 일부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내놔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해외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뉴욕에 미주법인을 출범했다. 이로써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뉴욕을 포함해 중국과 싱가포르 3각 체제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새로 수장이 바뀐 NH-아몬디도 대체투자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NH-아몬디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박규희 대표는 기업 투자금융부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2015년 대체투자사업에 뛰어들어 NH-아몬디운용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영등포 타인스퀘어 투자 등 대규모 투자에 참여하며 국내 부동산 투자에 입지를 넓히며 있다.

키움자산운용 역시 대체투자본부 내 해외부동산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아시아 지역의 대체투자상품을 발굴하는 ‘아시아비즈니스팀’을 신설하는 등 해외 대체투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통 투자처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운용사들이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MISSION HILLS

하이난 미션 힐스 블록버스터 골프 180

나도 그 곳에 가고 싶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맞장 뜬 그 곳
나도 가서 친구랑 원 없이 샷 대결 해보자!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블랙스톤은 있어라
이 곳이 진정한 블랙스톤 끝판왕이다

세계 최초·최대 골프 상품·180홀 라운드
5성급 호텔룸·내 맘대로 골라 먹는 호텔 조·석식
매주 목요일(3박 5일) 일요일(4박 6일) 출발

해외서 통했다… 더존비즈온 디지털 포렌식

탄자니아 사업 이달 완료… 오만·브루나이서 수주하기도
 日시장선 100여건 계약… “국내 운영 노하우 해외서 성과”

더존비즈온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 디지털 포렌식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7월 수주한 ‘탄자니아 정부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공급 및 교육사업’이 완료돼 이달 중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반 년간 탄자니아 정부 기관이 사용할 분야별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침해사고 대응, 솔루션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 교육을 진행해 현지 전문가를 양성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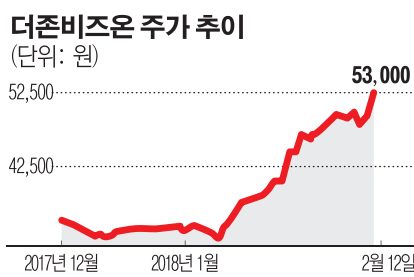
앞서 더존비즈온은 2014년 중동 오만 정부 디지털 포렌식 랩 구축 사업에 이어 2015년에는 브루나이 정부 디지털 포렌식 랩 구축 컨설팅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선도기업

의 위상을 확보해왔다.

오만 프로젝트는 오만 정부 기관이 사용할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솔루션 공급과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한 사업이다. 디지털 포렌식 랩 기반 시설 조성은 물론, 정보보호 분야 선진 침해 대응 경험 및 대응 역량 등 노하우 교육과 시설 운영, 관리 경험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는 평가다.

회사 측은 오만 국가 디지털 포렌식 랩은 국제 공인 포렌식 시험기관으로서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하면서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구축, 컨설팅, 인증에 이르는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브루나이 정부 역시 더존비즈온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랩의 본격적인 구축, 운



영에 앞서 기반 체계 마련과 관리방안 및 운영절차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았다. 법 및 조직 체계 구성, 포렌식 분석 업무 프로세스 설계, 디지털 포렌식 랩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총 세 분야에 걸친 종합 진단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일본 디지털 포렌식 시장에서도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일본 최고 권위의 디지털 포렌식 단체인 ‘디지털 포렌식 연구회’가 발표하는 ‘증거보전 가이드라인’ 최신판에 자사의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3종을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증거보전 가이드라인은 일본 내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보전의 기초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올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더존비즈온은 일본 시장에서 경시청, 해상보안청, 후지쓰 등 국가기관부터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을 확보하고 100여 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솔루션 3종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우 더존비즈온 보안사업 부문 대표는 “국내에서 더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운영해 온 오랜 노하우가 바탕이 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기능 개선에 나서는 등 기술력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블록체인 생체인증’ 개발 라온시큐어·더루프 ‘맞손’

차세대 인증 시스템 개발 나서
 신규 핀테크 사업 추진 예정

라온시큐어가 블록체인 기업과 FIDO 생체인증 시스템 개발 및 신사업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FIDO 생체인증 최대 구축 사례를 보유한 라온시큐어가 블록체인 전문기업 ‘더루프’와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FIDO) 시스템 공동 개발 및 핀테크 신사업 추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신규 핀테크 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국제 표준이며,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효과적인 차세대 인증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으로 편의성과 유익성을 갖춘 FIDO 생체인증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보안성이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한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협 더루프 대표는 “양사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시스템은 FIDO 서버의 인증 정보 생성 및 검증 과정을 블



라온시큐어와 더루프는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FIDO) 시스템 공동 개발 및 핀테크 신사업 추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왼쪽), 더루프 김종협 대표.

사진제공 라온시큐어

록체인 핵심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해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 같은 중앙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블록체인 노드들의 합의를 통해 차원이 다른 신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증기술과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최근 블록체인을 이용한 통합ID와 FIDO 생체인증 기술의 결합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FIDO 인증시스템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며 “국내외로 다양한 FIDO 생체인증 구축 사례를 보유한 만큼, 블록체인 선도 기술과의 접목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차세대 인증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루프는 블록체인 기술 선도기업으로, 데일리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개발 핵심 자회사로 2015년 8월 설립된 데일리인텔리전스의 자회사로 2016년 5월에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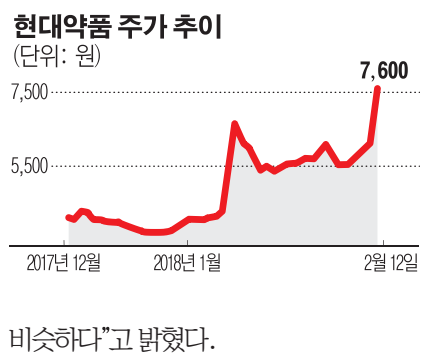
설경진 기자 skj78@

현대약품, 美FDA 승인 치매약물 4가지 모두 보유

타미린·하이페질 매출 증가

현대약품이 미국FDA 승인 치매 약물 4가지 라인업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타미린’은 갈란타민 성분 제네릭 약물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치매 약물의 매출 역시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회사 관계자는 “치매약물 성분 4가지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장이 성장하며, 판매도 늘고 있다”라면서 “특히 ‘타미린’과 ‘하이페질’의 매출 비중은



비슷하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의약품 등 전문 제조업체로 1965년 설립돼 197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건강기능음료인 ‘미에로하 이바’와 탈모제 ‘마이녹살’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미국 FDA가 승인한 치매약물 4가지를 보유 중이다. 갈란타민 성분의 ‘타미린’과 도네페질 성분의 ‘하이페질’, 메만틴염 성분의 ‘디만틴’, 리바스티그민 성분의 ‘스타그민패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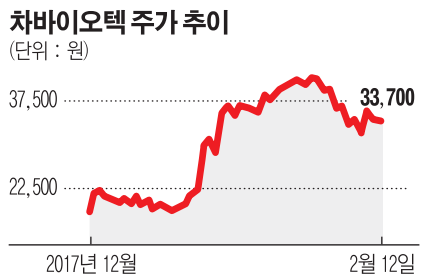
이 중 주력 품목은 ‘타미린’과 ‘하이페질’이다. ‘타미린’은 2009년 서방정제로 현대약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타미린’ 판매량은 약 43억 원 수준으로 같은 성분 베이스인 고려제약의 ‘뉴멘타딘’ (약 5억 원), 명인제약의 ‘명인갈란타딘’ (약 4억 원)의 약 10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바이오텍, 피부노화 예방·재생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 취득

관련 화장품, 봄에 출시 계획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 차바이오텍은 13일 ‘피부 줄기세포 배양액’을 포함하는 피부 노화억제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땀줄 또는 태반 유래 줄기세포를 피부조직세포로 분화시켜 배양액을 만드는 기술의 용도에 관한 것이



존 줄기세포 배양액에 비해 사이토카인과 성장인자, 단백질 성분 등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물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로 함유돼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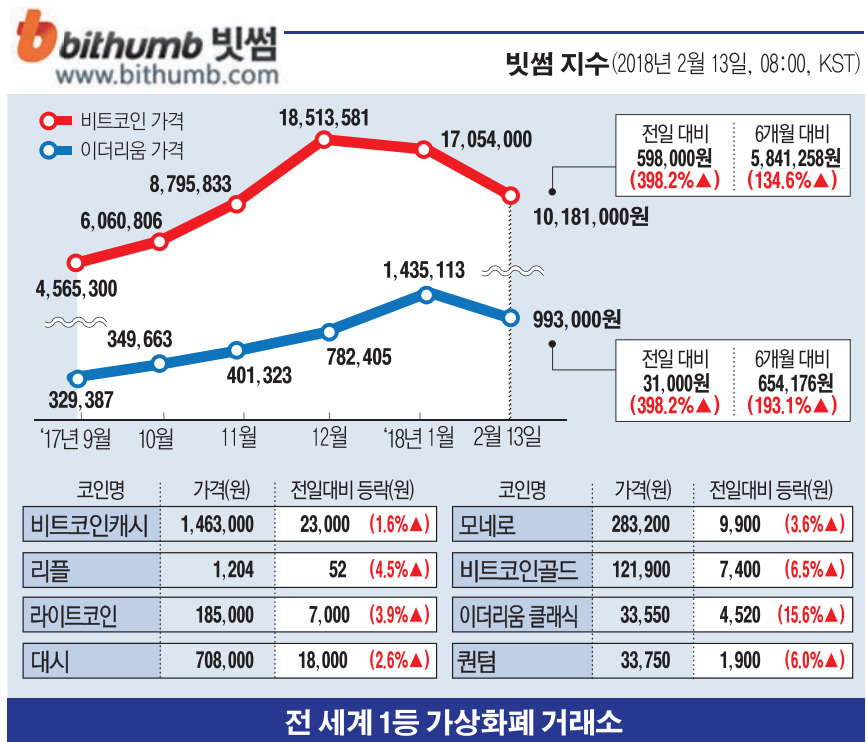
이 배양액은 항산화 활성도 및 콜라겐 발현에 대한 분석 결과,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향상, 색소침착 개선, 피부 조직의 형성과 재생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미용 제품 등에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유지민 차바이오텍 박사는 “땀줄이나 태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대로 배양액으로 만들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이

번에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피부조직세포로 분화해 피부 재생에 특화된 배양액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박사는 “향후 이 분화 배양액에서 나온 피부 재생과 노화에 관한 물질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허 등록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

이번 특허에 따른 권리는 차바이오텍과 관계사인 차바이옴F&C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차바이옴F&C에서는 이번 특허 기술이 접목된 피부조직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으로 만들어 올 봄 선보일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센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KB가 디지털에게 전하고 싶은 첫번째 이야기

인공지능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세상
아빠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마음까지 담아주세요

365일 36.5°C
KB 디지털금융